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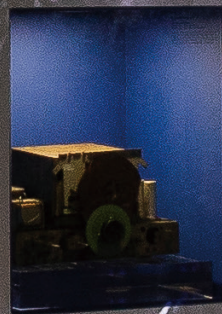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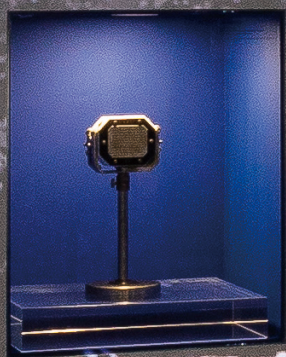
독립신문

vol.6
2023년 11월

독립신문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입니다.

vol.6

매체, 임시정부를 담다



〈물결;파동, 미디어에 나타난 대한민국 임시정부〉 전시실 전경



특집_매체, 임시정부를 담다

- 02 당시 중국 신문에 보도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 06 광복 이후 일간지에 비친 임시정부의 모습들
- 12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다룬 한국영화의 시대별 양상들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에서 온 소식

- 16 중경관 『독립신문』과 「창간사」

임시정부의 인물들

- 19 『독립신문』 2대 사장 김승학

독립의 터와 길

- 22 100년 전 뜨거운 시간 속으로 상하이 독립운동 사적지 여행

임정 생활탐색

- 26 『독립신문』 만평을 통해 보는 상해 한인들의 생활 문화

기념관

전시

- 32 물결,파동, 미디어에 나타난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장품

- 36 화폭에 독립운동가의 모습을 담다

학술/연구

- 40 국외사료 수집방안 세미나 개최 등

교육/행사

- 42 순국선열의 날 전시체험행사 등

- 46 소식

당시 중국 신문에 보도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 글. 장세윤(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수석연구원)

중국 언론(신문)에 다수 보도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중국의 방대한 언론(신문) 자료에 게재된 한국 독립운동 관련 기사의 분석은 아직 연구가 많이 되지 않은 분야 중의 하나이다. 이에 『홍콩화자일보香港華字日報』, 『텐진대공보天津大公報』, 『상하이시보上海時報』, 『신보申報』 등 주요 신문에 보도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이하 임시정부 또는 ‘임정’으로 약칭)를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 중국 언론계의 인식을 통해 임시정부, 더 나아가 한국 독립운동의 진상을 해명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그것은 중국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당시 그곳에서 활약하고 있던 임시정부의 활동과 그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임시정부는 크게 보면 1919년 4월부터 1932년 4월 말까지의 상하이시기, 그리고 1932년 5월부터 1940년 9월 중국 국민정부의 임시수도 충칭重慶에 정착하기 전까지의 이동시기, 그 이후부터 1945년 11월 환국하기까지의 충칭시기 등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이 3단계 구분에 따라 중국 각지에서 발행되던 주요 신문을 망라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한계로 임시정부 성립 초기 주요 중국 신문의 보도, 1920~30년대 주요 신문의 보도, 그리고 1937년 7월 중일전쟁 발발 이후부터 1945년 11월 환국하기까지의 시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세번째 시기는 중국국민당을 대변하던 『중앙일보中央日報』와 중국공산당을 대변하던 『신화일보新華日報』를 중심으로 정리하기로 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성립 관련 보도

1919년 3·1운동의 결과 성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약은 중국의 각 신문에 비교적 상세히 보도되었다.

1894~95년 청일전쟁에서 중국이 패배한 뒤 중국 지식층의 위기감이 확산됨에 따라 신문은 국민계몽의 “무기”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당시로서는 비교적 혁신적인 일간지 『시보時報』가 1904년 상하이에서 창간되었다. 원래 제호는 『시보』였으나, 상하이에서 발행되었기 때문에 흔히 ‘상하이시보’로 불렸다. 이 신문은 1911년 신해혁명 전까지는 가장 진보적 신문으로 알려졌다.

『상하이시보』는 1919년 5월 2일자에 「고려임시정부지조직高麗臨時政府之組織」, 같은 해 9월 26일자에 「한인선거임시총통韓人選舉臨時總統」, 11월 8일에 「고려혁명수령부일高麗革命首領赴日」, 같은 달 26일에 「고려대표단참여노병회高麗代表團參與勞兵會」, 1920년 1월 5일자에 「한인운동독립근문韓人運動獨立近聞」 등을 보도하였다. 특히 5월 2일 기사에서는 임시정부 내각 명단과 의정원에서 의결된 임시약법約法이 상당한 지면을 차지하며 소개되었다.

『대공보大公報』는 중국의 대표적 신문으로 1902년 6월 텐진天津에서 창간되었는데, 곧 상하이에서 발행되던 『신보』와 경쟁할 정도의 유력지로 성장했다. 처음 텐진에서 발행되었기 때문에 ‘텐진대공보天津大公報’로도 불렸다. 1936년에는 상하이판을 발간했고, 항일전쟁 기간에는 홍콩 한커우漢口·충칭에서도 간행되었다. 1926~49년까지는 국민당 계열에 속했다. 『신보』와 거의 비슷한



1919년 말의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10만부를 발행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4~5만부에 불과했다. 구독자는 거의 지식계층이었다. 편집장 장계난(張季鸞, 1888~1941)은 “친한파”로서 1930~40년대 국민당정부의 임시정부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대공보』는 1919년 4월 11일자에 「고려지임시정부高麗之臨時政府」 기사가 처음으로 보이고, 4월 14일에 「고려인지총통여각원高麗人之總統與閣員」, 같은 달 23일 「한인청승인고려민국정부韓人請

承認高麗民國政府」, 30일에 「대한민국임시약법大韓民國臨時約法」, 고려신정부지주의高麗新政府之主義」, 5월 1일자에 「대한민국출현의大韓民國出現矣」, 같은 달 2일에 「고려임시정부서사高麗臨時政府誓詞」, 10월 23일에 「상해한임시정부피법국봉쇄上海韓臨時政府被法國封閉」 등의 표제로 임시정부의 출범소식을 보도하였다.

『화자일보華字日報』는 1919년 4월 23일자에 「고려성립임시정부高麗成立臨時政府」라는 제목으로 처음 임시정부 소식을 전하였다.

화자일보는 1864년 홍콩데일리프레스(Hongkong Daily Press) 지로부터 독립하여 새로 출발하였다. 이 신문의 판로는 주로 홍콩 광둥省廣東省 등 중국 화남華南지방의 지식층부터 동남아시아 등지에 거류하는 화교까지 이르렀다. 1940년 이후 일본군의 홍콩 점령으로 폐간(또는 정간)되었다.

한편 『상하이신보上海申報』는 1919년 4월 11일에 「한인설립 임시정부지외인韓人設立臨時政府之外訊」, 5월 2일 「고려임시정부지조직高麗臨時政府之組織」, 9월 26일에는 「고려재호조직임시정부高麗在滬組織臨時政府」, 10월 22일에 「조선임시정부총기관천양朝鮮臨時政府總機關遷議」 등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신보』는 1872년 4월 중국차츰 무역상인 메이저(E. Majer, 영국인)가 상하이에서 창간한 중문신문으로 1949년 5월에 폐간되었다. 구중국 시기 발간되던 신문 가운데서는 가장 오랜 77년의 역사를 가진 신문으로써 당시 중국에서 『신문보新聞報』와 함께 최대부수를 발행하던 유력한 일간지였다.

당시 국호를 거의 ‘고려’로 표기하고 있고, ‘조선’이란 국호도 드물게 쓰이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정식 명칭을 쓰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19년 임시정부 성립 직후 당시 중국 언론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에 생소했을 뿐만 아니라, 1919년 3·1운동의 결과 한국인들의 여망을 반영하여 성립한 ‘임시정부’가 전통적으로 익숙했던 ‘속방’ 조선과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거의 대부분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세워졌다는 단순 사실보도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차츰 임시정부와 관련 단체, 주요 인물들의 활약이 알려지면서 이러한 인식은 크게 바뀌게 된다.

중국 주요 지역의 각 신문은 이후 1920년대 초에 가끔 임시정부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3·1운동에 비해서는 현격히 그 빈도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들 중국 언론매체의 한국 관련기사는 지리적으로 이웃하고 동일한 문화를 공유한 민족이라는 동정적 입장과 일제 침략의 공동 피해자로서 동병상련하는 입장에서 비롯된 성원·격려의 논조를 대체로 견지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항일전쟁 기간

『중앙일보中央日報』, 『신화일보新華日報』의 보도 경향

1937년 7월부터 1945년 8월까지의 중국 항일전쟁 기간 동안 중국국민당을 대변하던 『중앙일보』와 중국공산당을 대변하던 『신화일보』의 임시정부에 대한 보도 경향을 분석해보면, 두 신문은 여러 가지 공통점을 보이면서도 상당한 차이점을 보였다. 즉 두 신

문은 1937년 국공 양당의 합작에 따른 항일민족통일전선의 실현 방침에 따라 한국독립운동과 임시정부에 대하여 대체로 우호적 관점에서 열렬히 보도했지만, 국제정세와 중국내 항일전쟁의 양상, 국공 양당의 관계, 임시정부 등 한국독립운동 자체의 변화 등으로 각 시기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1941년 12월 일본의 태평양전쟁 도발 직후부터 1943년 11월 카이로회담이 열리는 시기에 두 신문은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보도가 대폭 늘어났다. 특히 여러 독립운동 단체 가운데 임시정부에 대한 보도로 집중되었다. 중앙일보가 16건, 신화일보가 27건이었다. 또 한국광복군에 대한 보도도 크게 증가하였다. 중앙일보가 21건, 신화일보가 29건이었다.

1943년 11월 카이로회담 직후부터 임정 요인들이 한국하는 1945년 11월까지 두 신문은 한국독립운동과 관련하여 군사분야 보다는 정치분야 보도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특징을 보였다. 임시정부 관련 보도가 중앙일보 50건, 신화일보 28건이다. 중앙일보가 거의 2배에 달한다. 중국국민당 정부의 지지와 관심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러한 경향은 임정 주석 김구에 대한 보도에서도 나타났다. 중앙일보가 34건, 신화일보가 7건으로 조사된다. 이 시기에 이르러 중앙일보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에 대해 보도한 것이다. 이는 1945년 8월 전후 시기에 임시정부와 광복군의 역량 확대를 통해, 이들이 귀국 후 새로운 국가 건설의 중심세력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한 중국 국민당측의 관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보기를 들면 1944년 7월 4일자 『신화일보』는 임시정부에 대해 임정의 승인을 요구하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여 성원을 보냈다. “임시정부는 목전 한인韓人을 대표할 수 있는 유일한 통일적 정부이므로 동맹국은 신속히 임시정부를 승인할 수 있다. 한국 광복군을 적극 원조하고 중국 적후敵後와 한국 국내 한인들의 반일운동을 발전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이는 일본 놈들의 목전 기도를 타격하는 데 필요한 조치이다.” 물론 임정 승인문제에 대해서 중국남방의 류저우柳州에서 발행되던 『류저우일보柳州日報』도 「사설 : 한국임시정부를 승인하라!」(1942.11.22)에서 “한국임시정부는 전체 한국민족의 통일된 의지에 의해 성립되었으며, 전체 한국민족을 대표하는 유일한 정부”라며 승인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중국의 항일전쟁이 끝나게 되는 1945년에 이르러 두 신문의 임정에 대한 보도는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 이 1년동안 중앙일보의 임정에 대한 보도는 신화일보의 거의 7배나 되었다. 1945년 8월 일제가 패망한 뒤 중앙일보는 이전에 비해 임정에 관한 소식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도했던 것이다. 반면에 신화일보는 오히

러 중앙일보와 반대로 입정에 대해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 중앙일보는 국제사회의 임시정부 정식 승인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요 중국 신문 보도의 시사점

그동안 자료상의 한계와 우리의 무관심 탓으로 별로 조명하지 못했던 중국 신문자료가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 등 한국독립운동에 대해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었던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시기별·지역적으로 중국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던 임시정부 등 한국 독립운동 관계 기사를 통해 한민족의 강인하고 지속적인 독립운동을 새롭게 인식, 재평가할 수 있다. 중국 신문에 임시정부 등 독립운동이 보도되었고, 그것이 다시 중국의 민족운동이나 항일전쟁, 중국인들과 한민족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그 상호작용도 적지 않았다.

다만 중국의 신문들은 주체가 아닌 제3자적 입장에서 조선(한국)이나 임시정부 등 민족운동에 관심을 가졌다. 따라서 중국 언론들은 조선총독부나 일본의 식민지 정책 당국자 등 일제의 선전정책, 아니면 임시정부 등 독립운동 세력의 역전전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보도할 수 있었다. 때문에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제의 패망 직전인 중국 항일전쟁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러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 등 독립운동 세력에 대한 보도가 폭증하고, 입정의 승인이나 입정의 역량을 긍정적으로 보도하는 기사의 비중이 늘어났다. 이는 당시 임시정부의 역할과 역량이 그만큼 성장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추후 한국학계의 후속 연구를 통해 임시정부와 중국 언론과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아십니까?”

광복 이후 일간지에 비친 임시정부의 모습들

— 글. 김창희(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

찢어진 호외

이 한 장의 찢어진 호외는 기념비적인 인쇄물이다. 『서울신문』이 1945년 11월 23일 자로 발행한 이 호외는 광복 직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제1진 환국 인사들이 이날 오후 4시 김포비행장에 도착했음을 최초로 알린 인쇄매체였다.

광복 무렵, 중국 충칭의 임시정부가 언제 귀국하느냐는 것은

한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다. 유감스럽게도 미군정청은 그 도착 일정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 그날 비행장에 환영객은 한 사람도 없었다. 풍찬노숙의 애국지사들은 이렇게 귀국했다. 그들이 앞으로 맞을 신산한 세월을 예고하는 장면이었다.

이들의 귀국 소식이 언론사들에 전해진 것은 이날 오후 6시 무렵이었다. 이미 석간신문 제작이 끝난 뒤였다. 이때 『서울신문』이 결단을 내렸다. 본판 제작은 끝났고, 배달도 쉽지 않은 때였지만 급히 한 면짜리 호외를 제작해 서울 중심가에라도 뿌리기로 했던 것이다.

『서울신문』은 일제 말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글로 발간되던 『매일신보』(총독부 기관지)를 계승한 신문이었다. 신문 발행을 위한 확실한 인적·물적 진용을 갖추고 있었던 셈이다. 이 신문이 11월 22일 제호를 『서울신문』으로 바꾸었는데, 공교롭게 다음날 임시정부의 귀국 소식이 전해졌다. 이들로서는 새 제호를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를 맞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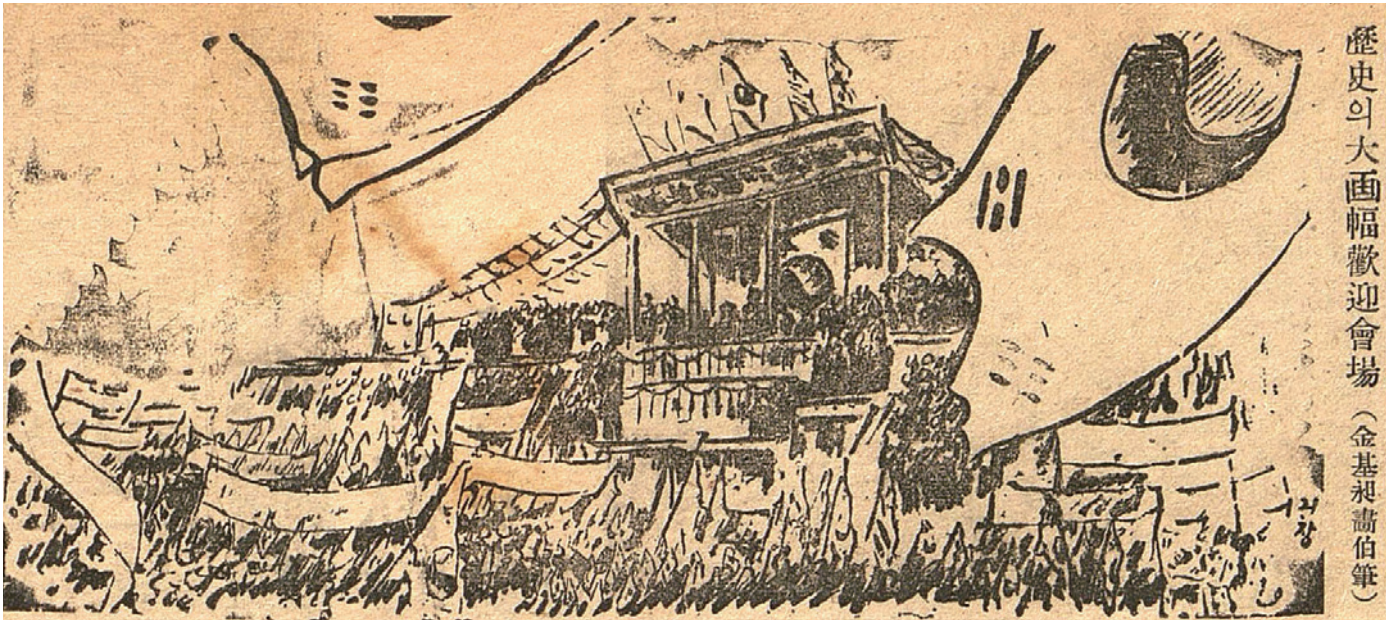
이 호외가 갖는 의미는 분명했다. 독립운동의 총지도부이자 광복 이후 새 나라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던 임시정부가 드디어 국내로 들어와 이제 그 실체를 국민 눈앞에 내보이는 역사적인 순간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개선, 그리고 망각

한국한 임시정부를 대하는 한국민들의 반응은 우선 ‘개선에 대한 환영’과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주체로 나서 주길 바라는 기대’였다. 나아가 ‘민족의 미래를 책임질 정치세력이 되었으면 하는



서울신문 호외, 1945년 11월 23일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개선 환영회 자유신문, 1945.12.20.

환영임시정부주석일행환국歡迎臨時政府主席一行還國

조선일보 | 1945.11.25. 기사

환영임시정부주석일행환국歡迎臨時政府主席一行還國 삼천만동포三千萬同胞의 지지支持바다자생독립완성自生獨立完成에매진邁進중앙방송국中央放送局 마이크통해 김구주석환국金九主席還國 첫인사그리운고국故國의 첫거름을들디어는 후後로 감격感激에사한채 하로밤을 자고난 김구선생金九先生은 이십사일오후팔시二十四日午後八時 서울 중앙방송국中央放送局『마이크』를통通하야 약오분約五分 동안 삼천만동포三千萬同胞에게보내는 첫인사의말을 다음과가치 방송放送하였다 친애親愛하는동포同胞여러분 이십칠년간二十七年間 이나 꿈에도 잊지못하고잇는조국강산祖國江山에 발을드려노케되니 감개무량感慨無量합니다 나는지난오일중경五日重慶을떠나 상해上海로와서이십이일二十二日까지 머물다가 이십삼일상해二十三日上海를떠나 당일當日 서울에 도착到着되었습니다 나와 객원일동客員一同은 한갓 평민平民의자격資格을가지고 드러왔습니다 압호로는 여러분과가치 우리의독립완성獨立完成을 위爲하야 진력盡力하겠습니다 압호로의전국동포全國同胞가 하나이되여 우리의국가독립國家獨立의시간時間을 최소한도最小限度 단축短縮식힙시다 압호로여러분과 접촉接觸할기회機會도만홀것이고 말할기회機會도만켓기에

오늘은다-만 나와나의동사일동同事一同이 무사無事히이곳에 도착到着되었다는 소식消息을 전傳합니다

임시정부환영臨時政府歡迎

동아일보 | 1945. 12. 14 기사

임시정부환영臨時政府歡迎

절차節次와 참가측 參加側의 주의사항注意事項

우리임시정부 수령의환국을 삼천만전국민의 총의로서 환영하고자 전국환영회에서는 오는 십구十九일상오구九시부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하기로된 임시정부개선 전국환영대회준비에대하여 각단체와 일반시민에게 다음과갓치 요망하고 있다

- 一 각단체 간학교는물론 간정회에서는 자진해서 국기계양과시가청소에 적극협력실행할 것
- 二 참가단체는 각기수기를가져올 것
- 三 대회당일상오 십일시十一時를기하야 각사원 각교회에서는 오분간계속하야타종할 것
- 四 참가단체는 시간전에 입장 청열할 것
- 五 회장입구의혼잡을 피하기위하야단체는 정문 각정회와일반은 후문에 정열하야 각계원의 지시에의하야행동할 것

보다 적극적인 지지'도 만만치 않게 있었다.

이렇게 환영과 기대와 지지의 정서가 집약되어 나타난 것이 1945년 12월 19일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 봉영회'였다. 광복 무렵 서울 인구가 100만이 채 되지 않던 시절에 무려 15만 명의 인파가 몰린 이 환영회는 임시정부 요인들의 입장, 태극기 게양, 애국가 제창, 이화여전 합창단의 환영가 제창, 홍명희의 환영사, 러치 미군정장관의 축사, 송진우의 환영사, 김구 주석의 답사, 이승만 박사의 답사, 만세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그뿐 아니었다. 이날 광복 이후 처음으로 꽃전차가 운행했고, 서울 시내 모든 교회와 사찰, 학교에서 오전 11시 환영회 개최에 맞추어 일제히 종을 울렸다. 이는 임정 요인들의 개선을 축하하는 동시에 애국 선열들을 추모하는 종소리였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는 “백만 시민이 다함께 머리를 조아리고 묵상을 올렸다”(1945년 12월 20일 자)고 적었다.

모든 언론이 이 환영회와 그 전후의 일들을 12월 20일 자 지면에 그야말로 대서특필했다. 그중에서 『자유신문』은 당시 이 신문 문화부 기자였던 동양화가 김기창 화백의 그림을 기사에 덧붙여 이른바 ‘낙양洛陽의 지가紙價’를 올렸다.

이렇게 1945년 11~12월은 환국한 임시정부 관계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매체들의 기삿거리였다. 수행원들까지 인터뷰하면서 이들의 친필 서명을 받아 소개하기도 했다. 그런 상황은 연말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계기로 정국이 급격히 찬탁·반탁 논란으로 방향을 틀기까지 계속됐다.

그 뒤 해방정국에서 임시정부가 언론에 부각된 것은 신탁통치 반대운동, 과도정권 수립 활동, 임시정부 봉대운동, 그리고 1948년의 남북협상 등이었다. 그러나 1948년 5월 임시정부 그룹의 한국독립당이 제헌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1949년 6월 26일 김구 주석이 암살되면서 임시정부 그룹은 내리막길을 걸었다. 그것은 망각의 시대였다.

새날은 눈물과 함께 열리는가?

『조선일보』는 1960년 6월 26일 자(석간) 제3면에 ‘도산悼傘·누해淚海로 뒤덮은 공원公園’이라는 큰 제목과 ‘백범 선생 추도식 11년 만에 성대히’라는 부제 아래 김구의 11주기 추도식 기사를 대형 기사로 소개했다. 4·19혁명 두 달 뒤의 일이었다.

지금의 정서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아무리 이승만과 김구가 정적이었다 해도, 이승만 정권 10년 동안 김구의 추도식조차 열 수 없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는가? 게다가 1948년 정부 수

립, 1949년 김구 암살, 1950년 임시정부 요인 남북 등을 거치며 임시정부는 1960년 4·19혁명이 오기까지 10년 동안 사실상 잊힌 존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1960년의 ‘첫 추도식’ 기사 자체가 4·19혁명으로 새 세상이 열렸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하늘도 슬픈 듯 비오는 서울 효창공원 묘소”라는 감상적인 표현 속에 지나간 세월에 대한 회오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원망이 뒤섞인, 당시 시민들의 정서가 묻어난다.

사라졌다 끝내 부활하다

1960년 4·19혁명 이후 1992년 한중수교에 이르기까지 30여 년 동안 임시정부가 언론, 특히 일간신문에 어떻게 비쳤는지는 한 호흡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다. 그 기간 임시정부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과 이슈의 변화가 일정한 시대적 맥락을 타고 변화해 갔기 때문이다.

제2공화국 시기: 4·19혁명~5·16쿠데타

이 시기 김구 11주기 추도식 외에 임시정부가 미디어의 관심을 받은 경우는 김구 암살사건의 진상규명 움직임 정도였다. 4·19혁명 직후 진상규명운동이 시작되어 서울지검이 채수사를 벌이는 단계까지 가기도 했으나 성과는 미미했다. 관련보도 역시 단신 수준이었다.

숨어나다던 안두희가 진상규명운동을 하던 민간인들에게 강제연행되어 서울지검에 넘겨진 사실이 『경향신문』 1961년 4월 18일 자에 크게 보도되었다. 그러나 수사 당국이 암살의 배후를 확인하기에는 준비도 되지 않았고, 시간도 부족했다. 약 한 달 뒤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뒤 안두희 조사는 다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 기간 중 안두희 사안 외의 임시정부 관련 보도로는 제2공화국 윤보선 대통령이 ‘임시의정원 의원’ 출신으로 소개되는 정도였다.

제3·제4공화국 시기: 5·16쿠데타~10·26사태

임시정부를 포함해 독립운동이 정권과 미디어의 관심을 다시 받은 것은 뜻밖에도 만주군 출신 박정희 장군의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부가 독립운동가들을 대대적으로 서훈한 일 때문이었다. 사실 이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였다. 아마도 쿠데타 세력으로서 자기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의 일환이었을 것이다.

군사정부는 1962년 2월 23일, 독립운동 유공자들을 대대적으로 서훈한다고 발표했다. 그 수가 무려 208명이었다. 숫자도 숫

대한임시정부大韓臨時政府가정부政府로서지도指導하라

조선일보 | 1945.12.29. 기사

대한임시정부大韓臨時政府가정부政府로서지도指導하라

신탁통치의 놀라운소식을들고새문밖 임시정부 숙소에는 김구金九주석이하가 구수회의를하는중이리고한다 임시정부는이미 환국한지 한달이 지났다그러나 점령군당국과의관계 또는 국내각정당과의관계로 오늘까지 아모리한 구체적행동을하지못하고오 즉 압으로진행하여나아갈방침을 신중히 협의하고잇섯을뿐이다 우리는 임시정부요인의 괴로운심정을 알지못하는바도아니오 그처지에대하여 오늘날까지 김호리해외 동정을가지고 하루밤비 임시정부가 정부로서 위령을행하기를 고대하여왔다 그러나 오늘에당하여야는어제와가치 이것저것생각만할때가아니다 임시정부는 오늘부터우리의정부로서 나서지아니하면안될때가왔다 새문밖숙소에서덕수궁으로 나아오리 그리하여삼천만민중에게 갈바를알니리 법률을말하고 통합을말할시간이없다 임시정부자체부터 독립전선으로 나서라 이것이 오죽하나인 우리의살길이오 임시정부의갈길이다

자려니와 이는 광복 후 독립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첫 서훈이나 다름없었다. 그동안 건국공로훈장을 받은 내국인은 1949년 정부 수립 1주년에 수훈한 이승만 대통령과 이시영 부통령뿐이었다. 그 외에는 1950년대에 장제스 중화민국 총통 등 국가원수급 외국인 5명에게 수여된 것이 전부였다. 이 시기 건국훈장은 일종의 의전용이었다.

1962년 2월 26일 자로 『동아일보』가 보도한 건국공로훈장 서훈자 중 1등급인 ‘중장重章’ 명단은 최익현, 이강년, 허위, 김좌진, 오동진, 민영환, 조병세, 안중근, 윤봉길, 이준, 강우규, 김구, 안창호, 신익희, 김창숙, 손병희, 이승훈, 한용운 등 18명이었다. 2등급인 ‘복장復章’ 서훈자 중에는 홍범도, 지청천 장군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서훈자들에 김구 안창호 등 임시정부 관계자가 여럿 포함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광복 17년이 되도록 김구, 안창호 등은 물론이고 안중근, 윤봉길 의사와 손병희 기미독립선언 대표 등이 이때까지 서훈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다.

그러나 이 서훈은 대상자 선정 및 검증에서 너무 서두르는 느낌을 주었는지 ‘지나치게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동아일보』 2월 24일 자에서는 이번 서훈의 ‘중장 서훈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김창숙 송이 “훈장 100개보다 하루속히 민족반역자를 없애는 것이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이라고 소감을 밝힌 것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이렇게 비판할 일이라도 더 있었으면 좋으련만 1960~70년대의 제3·제4 공화국 시대를 거치면서 임시정부를 포함해 독립운동 관련 신문 기사는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이를 부각하지 않았던 것과 관계없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 점

에서 4·19혁명 직후와 마찬가지로 5·16쿠데타 직후도 ‘반짝 관심’ 수준이었다고 보는 게 맞겠다.

오히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민정 이양을 앞두고 1962년 12월 26일 제5차 개헌을 통해 제3공화국 헌법 전문에서 임시정부 관련 내용이 삭제되었다는 점이다.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립’되었다는 사실, 광복 후 민주독립국가로 ‘재건’했다는 사실 등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는 국가의 기원 및 정통성 인식의 단절이었다. 당대에 이를 알아채고 지적한 언론은 없었다.

제5공화국 시기

세상 일 참으로 알 수 없다. 신군부가 집권한 제5공화국 시절에 임시정부가 크게 주목받은 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다. 예를 들어, 『조선일보』 1982년 4월 15일 자에 ‘임시정부의 재평가’라는 제목으로 실린 사설을 보자.

근년 민족적 정통성과 올바른 민족사관의 확립이 유달리 강조되어 왔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이제는 마땅히 그것이 차지해야 할 공평한 역사적 지위를 차지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국사책에는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의 지도적 핵심체였음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다수의 국민들의 뇌리에서는 임시정부에 대한 기억은 사라져가고 있으며 해방 후의 대한민국 정부의 모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실로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 직후 그 자주독립정신을 이어받으면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민주공화국을 선언하고, 조국이 해방될 때까지 주권국가의 수립을 위해 분발투쟁해온 민족적 독립운동의 총본산이요, 중국 상해에서 수립된 이른바 ‘망명정부’였다.

이 사설의 요지는 분명하다. ‘임시정부가 차지해야 할 공평한 역사적 지위’로서 한국사 교과서에 설명된 ‘민족독립운동의 총본산’이라는 점뿐 아니라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의 모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국’이라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지난 세대의 ‘임시정부 인식’에서 크게 진전된 것이었다.

그러더니 『동아일보』 1982년 12월 6일 자 ‘1919년을 대한민국 기원으로 삼자’는 기사는 앞의 ‘임정 재평가론’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갔다. 광복군 출신인 건국대 조일문 총장의 고별강연을 소개한 이 기사는 임시정부가 3·1운동의 산물인 동시에 의회 중심의 첫 민주정부였다면서 1919년과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기원’으로 삼자고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그것은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에서 사라졌던 대한민국의 기원 문제가 재론되기 시작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12·12’라는 초법적인 사태를 통해 집권한 신군부가 지배하는 1980년대였지만 한국 민주공화정의 기원을 찾아가는 이런 도도한 논의를 막을 길은 없었다. 이 ‘임시정부 정통성’ 논의는 1980년대에 대학가 등에 도입되기 시작한 북한 주체사상에 대응해 우리의 뿌리와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지식인 사회의 시도와도 맞닿아 있었다.

1987년 6·29선언과 개헌

결국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그 결과로서의 6·29선언은 1987년 10월 29일 제9차 개헌을 통해 제6공화국 헌법으로 매듭지어졌고, 임시정부는 그 전문에 명료하게 부활했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표현 안에 지난 1980년대의 모든 정통성 논의와 그 결론이 함축되어 있었다. 이 헌법이 바로 오늘날의 헌법이다.

이 모처럼의 개헌 기회에, 제헌헌법에 들어 있다가 제3공화국 이후 사라진 ‘3·1운동을 통한 대한민국의 건립’과 ‘민주독립국가의 재건’의 대의를 어떻게 복구할 것이냐는 문제는 역사학계에서는 놓칠 수 없는 과제였다. 『동아일보』 1987년 2월 23일 자에 지상중계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에 관한 학술대회’가 대표적인 경우였다. 이날 김준엽 전 고려대총장의 기조연설 가운데 주요 대목은 이렇다.

이와 같이 1948년 제헌국회의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 임정의 건국을 제1공화국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오늘의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의 근원인 동시에 정당한 통치권원(統治權源)임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 5·16 이후의 개헌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과 그 민족사적 정통성’의 내용을 그 전문에서 삭제한 것은 헌정

사상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다.

(...) 새로 개정되는 헌법의 전문에는 3·1독립정신의 계승과 더불어 첫째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우리 민족이 세운 민주공화국의 효시로서 제1공화국이라는 사실과, 둘째로 1919년의 상해 ‘임정’의 ‘임시헌장’이 우리 헌정사의 시점으로서 (...) 명시되어야 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민족사적 정통성을 가지니 오늘날의 대한민국 정부도 임시정부에 근원을 두고 거기서 통치권의 원천을 찾으라는 말이다. 심지어 1919년의 임시정부를 제1공화국으로 인정하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그 뒤 개헌안 협상과정에서 임시정부의 정통성 또는 법통 문제는 쟁점이 된 적이 없었다. 여야 모두 사전 조율을 통해 동의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넋이라도 있고 없고...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냉전 해체 뒤 1992년 8월 24일 국교를 정상화했다. 이로써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갈 수 없던 중국과 왕래가 가능해졌다.

그렇게 두 나라 관계가 자유로워지면서 성사된 일들 중의 하나가 중국 땅에 묻혀 있던 독립운동가들의 유해 봉환이었다. 중국 관내의 상하이와 충칭은 물론이고 동북지방에도 그곳에서 독립운동에 매진하던 애국지사들이 숨겨 ‘무주고혼(無主孤魂)’으로 묻혀 있지만 1949년 중국대륙의 공산화 이후 우리는 그곳에 갈 수가 없었다.

김구 선생이 생존해 있던 1946년 6월 15일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삼의사의 유해가 어렵사리 일본에서 봉환됐고, 1948년 8월 8일 이동녕, 차리석 애국지사와 곽낙원(어머니), 최준례(아내), 김인(큰아들) 등 김구 일가의 유해가 중국에서 돌아왔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중국의 문이 닫히며 우리는 중국 내 애국지사 묘역의 안위를 살필 길이 막혀버렸던 것이다.

그러다 한중수교 이후 봇물 터지듯 양국 교류가 늘고 유해 봉환도 정부가 나서서 추진해 1990년대 내내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과 미주 등지에서 기회가 닿는 대로 애국지사들의 유해가 돌아왔다. 그 흐름은 2020년대에도 이어지고 있으며, 언론 역시 그때마다 이 ‘넋의 귀환’ 사례들을 놓치지 않고 보도하고 있다.

그 와중에 한 가지 해프닝이 있었다. 임시의정원이 1919년 4월 10일 밤 상하이에서 역사적인 첫 회의를 갖고 임시정부를 구성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진 건물과 당시 임시정부 요인들이 숙소로 사용하던 건물이 확인됐다면서 한 사업가가 이 두 건물을 매

입한 뒤 이를 해체해 무려 컨테이너 28개에 나눠 싣고 국내로 들여온 일이 있었다. 1994년 1월의 일이었다.

이 건물이 정확하게 1919년의 그 건물이라면 이는 엄청난 뉴스였다. 당연히 대부분의 언론이 이 일의 진행상황을 추적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분야를 전공한 학자들의 검증 결과, 상하이 시내의 도로명과 지번이 1940년대 이후 몇 차례 변화를 겪었는데 그런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일장춘몽이었다.

100살에 되찾은 생일

2000년대와 2010년대의 임시정부 관련 보도는 역대 대통령들의 중국 내 임시정부기념관 방문했다는 이야기와 국내에 기념관을 건립하는 문제가 본격 제기됐다는 이야기 정도로 마치고 지금 더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때는 이른바 ‘건국론’과 ‘역사 국정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의 연대였다. 그 논란은 지금도 진행 중이며, 역사가 엄정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 시기에 있었던 두 가지 사실과 관련 보도만은 살펴보는 게 좋겠다. 두 가지 다 2019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전후한 시기의 일이다. 그 중 첫째는 임시정부가 수립 100주년인 2019년에 비로소 자기 생일 ‘4월 11일’을 되찾았다는 사실이다. 이것도 다시 생각해 보면 참으로 괴이한 일이다. 대한민국이 자신의 법통으로 삼고 있는 임시정부의 수립일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아버지 생일을

제대로 모르던 아들 격이라고 해야 할지….

그 경위를 상세히 소개한 것이 『경향신문』 2018년 4월 16일자 ‘여적’ 칼럼이다. 이에 따르면, 1919년 4월 10일 밤 10시 소집된 임시의정원 첫 회의가 밤샘 끝에 국호 ‘대한민국’을 결정하고 임시헌장을 채택했으며 각료들까지 선출한 것은 회의록 등으로 미뤄 의심할 여지가 없고, 임시정부가 대륙을 떠돌면서도 4월 11일에만은 꼭 ‘정부수립 기념식’을 거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2005년 한시준 교수(현 독립기념관장)가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각종 사료를 바탕으로 문제 제기한 이후 ‘4월 11일’이 역사학계의 정설로 자리 잡았고, 마침내 2018년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기념일이 변경되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2019년 ‘10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생일상을 받게 된 것이다. 만지지탄이었다.

둘째는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념관이 국내에 세워진 사실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는 2004년 창립 이후 줄기차게 이 문제를 제기해 왔고, 여러 갈래로 아주 구체적인 기념관 건립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것이 마침내 2016년 서울시의 부지 제공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해 2017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정부기념관을 국립으로 건립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위치에 2022년 개관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말하자면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관’의 성격도 갖는 것이다.

그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 곁에 굳건히 자리를 잡았다. 내일 임시정부는 또 다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설까?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다룬 한국영화의 시대별 양상들

— 글. 함충범(한국영상대학교 영화영상과 교수)



〈아아 백범 김구 선생〉, 전창근, 1960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인의 손으로 만들어진 첫 영화로 공인되어 있는 작품은 1919년 10월 27일 단성사에서 공개된 〈의리적 구토〉라는 연쇄극連鎖劇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보다 조금 이른 동년 9월 11일 상하이上海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한국영화의 역사와 임시정부의 역사가 출발 지점에서 시기적으로 맞닿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 수십 년간 식민지 시대가 이어졌으므로, 영화 속에 임시정부가 등장하거나 다루어지는 일은 일절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기점으로 상황이 전도되었다. 1946년부터 남한에서는 극영화 제작이 재개되었는데, 그 경향을 주도한 것은 조국 독립을 위해 몸 바친 민족 영웅을 형상화한 일련의 작품들이었다. 해방 후 최초의 극영화인 이구영 감독의 〈의사 안중근〉(1946)을 비롯하여 김영순 감독의 〈불멸의 밀사〉(1947), 윤봉춘 감독의 〈의사 윤봉길〉(1947), 최인규 감독의 〈죄 없는 죄인〉(1948), 윤봉춘 감독의 〈유관순 전〉(1948), 노필 감독의 〈안창남 비행사〉(1949)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 가운데 〈불멸의 밀사〉는 이준 열사를, 〈죄 없는 죄인〉은 주기철 목사를 대상으로 하였던 바, 이들 작품은 동일하게 죽음을 불사하고 항일 정신을 행동으로 옮긴 역사상의 실존 인물을 영화 속 주인공으로 삼았다.

그런데 이들 작품 속 인물 및 사건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관되어 있었던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에 상하이사변 3개월 후인 1932년 4월 29일 홍커우공원虹口公園에서 일본의 유력 인사들을 향해 폭탄을 투척하여 사상을 입힌 윤봉길(1908~1932)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의사 윤봉길〉이 두드러져 보인다. 그의 인생 전체가 영화 속 이야기 줄거리를 이루었겠지만, ‘거사’ 직전 임시정부 산하 조직인 한인애국단을 이끌던 김구와의 만남 과정이 중요한 사건으로 배치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통해 한국영화와 임시정부의 관계가 ‘해방’이라는 역사적 상황의 변화 및 정치성과 상업성을 아우르는 영화의 대중적 성격을 기반으로 맺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양상이 재연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1960년대에 접어들어서야 비로소, 여전히 많은 수를 차지하지는 못하였지만, 영화의 시공간적 배경을 중국 상하이 또는 과거 일제강점기로 설정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인물이나 사건 등을 서사의 구성 요소로 활용하는 작품들이 다시금 나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때 역사적 실존 인물 및 실제 사건을 담은 영화들도 하나의 지류를 형성하였다. 포문을 연 작품은 전창근 감독의 〈아아 백범 김구 선생〉(1960)이었다. 1949년 6

뒤로五番地
무지무지한악은
특급악손! 兇

월 26일 경교장에서 안두희의 총탄에 맞아 서거하는 첫 장면 다음으로 11주기 추도식 상황이 화면을 장식한 뒤, 영화는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한 청년 시절부터 1945년 11월 23일 미군 수송기를 타고 한국하는 순간까지 이어진 김구(1876~1949)의 독립운동 여정을 2시간 24분여의 긴 시간에 걸쳐 소개한다.

〈아아 백범 김구 선생〉 이후에도 영화 속에 임시정부가 등장하거나 다루어지는 경우가 여럿 있었다. 그리고 이들 작품에는 공통적으로 ‘김구’가 극 중 중심인물로 설정되었다. 관련 작품으로는 이용민 감독의 〈일본제국과 폭탄의사〉(1967)와 조궁하 감독의 〈상해임시정부〉(1969) 등을 꼽을 만하다. 〈일본제국과 폭탄의사〉에서는 한인애국단 소속으로 1932년 1월 8일 도쿄東京에서 히로히토裕仁 일왕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이봉창(1900~1932)의 사쿠라다몬櫻田門 의거와 윤봉길의 홍커우공원 의거가 주요 사건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김구가 주요 인물로,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가 공간적 배경으로 등장한다. 〈상해임시정부〉에서는 이봉창, 윤봉길 등이 주변 인물로 배치된 상태에서 김구의 임시정부 활동이 이야기를 견인한다.

또 다른 지류도 생겨났다. 최경섭 감독의 〈상해 리루〉(1963), 황학봉 감독의 〈무기와 육체〉(1968), 강대진 감독의 〈가로수의 합창〉(1968) 등이 이에 속한다. 〈상해 리루〉는 상하이에서 활동 중인 주인공 독립단원 한준호(박노식 분)가 바의 여급인 리루(신미림 분)의 애정 어린 도움을 받아 무기와 탄약을 한국광복군 본부까지 수송하라는 상하이 임시정부로부터 내려진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담았다. 〈무기와 육체〉 역시 항일투사 박창호(김진규 분)가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한국독립군으로 무기를 호송하는 여정을 다루었다.

〈가로수의 합창〉의 경우, 일본 유학생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철우(신성일 분)와 일본인 여성 유미코(윤정희 분)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그린 영화였다. 극 중 이철우에게 도움을 주는 윤혜숙(김지미 분)이 등장하는데, 그녀가 상하이 임시정부로부터 일본에 온 밀사로 설정되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앞의 두 영화와는 달리 임시정부가 이야기



〈상해 리루〉, 최경섭, 1963



〈상해의 밤〉, 엄심호·이용호, 1963



〈상해 55번지〉, 고영남, 1965



〈상해임시정부〉 조궁하, 1969

구성 요소의 극히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할 만하다. 어찌 보면 다소 모호한 설정이라 하겠는데, 동시기 한국영화 중에는 이와 유사성을 지니는 것들도 종종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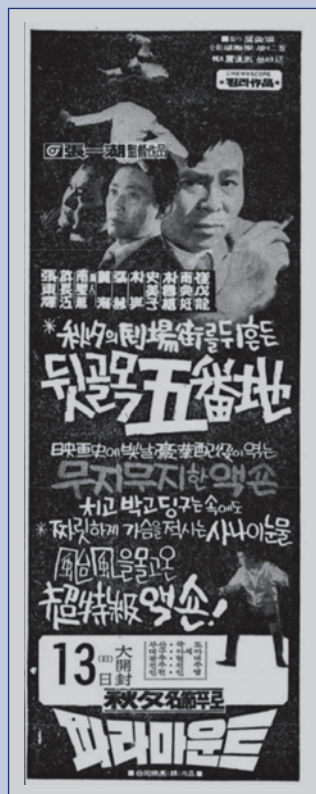
〈상해 리루〉처럼 영화 제목에 ‘상해’라는 지명이 붙어 있는 작품들을 살펴보자. 엄심호 이용호 감독의 〈상해의 밤〉(1963), 고영남 감독의 〈상해 55번지〉(1965), 신경균 감독의 〈0번 상해 돌파〉(1967) 등의 영화 속 주인공들은 상하이를 근거지로 활동하는 독립운동가 또는 독립군으로 등장하였다. 그런데,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임시정부의 존재는 특별히 제시되지 않았다. 아울러 이와 같은 설정 방식은 홍성기 감독의 〈대지의 성좌〉(1963), 조궁하 감독의 〈아카시아 꽃잎 필 때〉(1962), 최경옥 감독의 〈이대로 죽을 수 없다〉(1964), 임원식 감독의 〈나는 매국노〉(1966), 이신명 감독의 〈지평선은 말이 없다〉(1966) 등의 작품들에도 적용되었다. 이처럼, 1960년대에는 인물형 및 시공간 설정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양상을 통해 영화 속 임시정부의 존재 방식이 이전에 비해 상당히 다양해졌다. 주목되는 점은, 대신에 관련 작품들의 장르적 성격이 보다 짙어져 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상당 부분 1970년대로도 이어졌다. 게다가 그 양상이 보다 다채로워지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암흑가를 전전하던 정의로운 한 인물이 일본인 폭력 조직을 처단한 뒤 임시정부로 발길을 옮긴다는 줄거리를 지닌 장일호 감독의 〈뒷골목 오번지〉(1970)와 중추원 참의인 부친의 뜻에 따라 판사가 된 주인공이 항일운동을 하는 동생의 탈옥을 돕고 그를 임시정부로 떠나보내는 과정을 그린 박윤교 감독의 〈호피 판사〉(1970) 등은 장르적 토대는 서로 달랐으나, 임시정부가 이상적인 도피처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녔다. 상하이 임시정부 소속의 독립운동가가 명월관의 기생 다섯 명의 헌신적 도움으로 임무를 완수한 후 그녀들과 함께 상하이로 향한다는 서사 구조를 취한 임권택 감독의 〈장안명기 오백화〉도 이야기의 마지막 지점에서는 교집합을 이루었다.

최영철 감독의 〈거대한 음모〉(1976)와 같이 임시정부 첩보원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액션영화의 장르적 특성을 결합시키거나 〈천의 얼굴: 실록 한일첩보전 시리즈 제1탄〉(1976)처럼 영화 속에 김구, 장제스蔣介石 등의 역사적 인물을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는 장치로 활용하는 예들도 있었다.

한편, 1980년대 이후로는 한동안 영화 속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등장하거나 다루어지는 경우를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다가, 한국영화와 임시정부가 다시금 관계 맺게 된 것은 200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였다. 1970년대 복고풍을 재연한 인터넷 영화 〈다찌마와 리〉(2000)의 리메이크작으로 기획된 류승완 감독의 극장용 장편 영화 〈다찌마와 리: 악인이여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라〉(2008)를 통해서였는데, 시간적 배경이 1940년으로 두어진 이 작품에서 주인공 다찌마와 리(임원희 분)는 임시정부의 ‘비밀 병기’로 재설정되어 있다. 또한 첩보물과 액션물이라는 장르적 틀 위에 코믹 요소를 덧입혀 흥행성을 추구하였다.

이어, 업계의 호황이 이어지고 국제적 인지도가 높아진 2010년대 중반부터는 제도권의 상업 영화 내에서도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두는 경우가 다시 생겨났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최동훈 감독의 〈암살〉(2015)을 들 수 있다. 기발한 아이디어와 화려한 캐스팅, 현란한 카메라워크 등을 통해 장르적 효능을 극대화함으로써 1,270여만 명이라는 엄청난 관객 동원 수를 기록한 이 영화는, 만주사변(1931)과 상하이사변(1932) 직후인 1933년을



〈뒷골목 오번지〉 장일호, 1970



〈다찌마와 리: 악인이여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라〉, 류승완, 2008



〈암살〉, 최동훈, 2015



〈영웅〉, 윤제균, 2022

시간적 배경으로 둔 채 임시정부 측에 의해 지목된 요원들 3인의 활약상을 담고 있다.

비슷한 시기 1920년대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의열단 소속 요원과 밀정, 일본 경찰들 간의 속고 속이는 심리전을 그린 김지운 감독의 〈밀정〉(2016)이나 1945년 일본 나가사키長崎에 위치한 하시마端島를 배경으로 노역 등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의 탈출 과정을 담은 류승완 감독의 〈군함도〉(2017)도 제작 개봉되었다. 두 작품은 영화 속에 임시 정부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전자에서는 1920년대 상하이라는 시공간적 배경이 나오고 후자의 경우 광복군 소속 요원 박무영(송중기 분)이라는 인물이 등장함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임시정부를 연상케 하거나 그 존재성을 감지토록 한다.

근래의 양상은 어떠한가? 2010년대 중반이 지난 뒤로는 그렇다 할 예시를 꼽기가 수월치 않다. 하지만 2010년대 중후반에도 이준익 감독의 〈동주〉(2016)와 〈박열〉(2017), 이원태 감독의 〈대장 김창수〉(2017), 조민호 감독의 〈항거: 유관순 이야기〉(2019)처럼 역사적 위인들의 삶을 다양한 시선과 영상 기법을 통해 조명한 여러 편의 영화들이 만들어졌으며, 엄유나 감독의 〈말모이〉(2019)와 같이 조선어학회에 초점이 맞추어진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2022년 말에는 동명의 뮤지컬 작품을 원작으로 하여 안중근의 영웅적 면모를 뮤지컬 영화 형식으로 연출한 윤제균 감독의 〈영웅〉이 나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이 거듭되다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작품들이 기획·제작되는 일도 또 다시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러한 바람이 실현되려면 기본적으로 영화의 흥행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제작진의 노력과 대중들의 관심이 합쳐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쌓여 온 한국영화의 저력을 재차 기대해 본다.

중경판 『독립신문』과 「창간사」

— 글. 김주현(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중경판 『독립신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관지로, 1943년 7월 20일 창간호가 발간되었다. 이것은 사실 상해판 『독립신문』을 복간한 것이다. 상해판 『독립신문』은 1919년 8월 21일 창간이 되었지만, 일제의 간섭과 방해 공작, 신문사의 재정난 등으로 발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1926년 11월 30일까지 7년여에 걸쳐 198호를 발간하고 폐간되었다. 중경판 『독립신문』은 그러한 신문의 맥을 잇고 당대의 현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창간된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1년 중경으로 옮겨간 뒤 선전위원회를 두고 대내외 선전 활동에 치중하기 위해 『독립신문』을 복간하였다.

상해판 『독립신문』은 국한문으로 발간되었지만, 중경판 신문은 중국어로 발간되었다. 그것은 먼저 국문 활자를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해 『독립신문』은 조선문 朝鮮文 성경의 활자로 자모를 만들어 국한문판을 발간하였지만, 중경에서는 국문 자모를 구하거나 만들기가 수월하지 않았다. 그래서 당시 중국에 있던 독립운동 단체들이 내는 잡지들도 중국에서 구하기 쉬운 한자로 발간되었다. 다음으로 이 신문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들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상해 시절에도 중국어판 『독립신문』이 1922년 7월 20일 창간되었지만, 1924년 3월경까지 40호 정도 나온 이후 발간되지 못했다. 임시정부에서는 우리의 독립운동을 전파하기 위해 러시아어, 영어, 프랑스어 등으로 발간할 뜻이 있었지만, 우선 중국어판을 내었다. 그리하여 중국인들에게도 한국의 독립운동을 제대로 알리고자 한 것이다.

중경판 독립신문 창간사에서는 3·1운동을 ‘대혁명운동’으로 역사적 성격을 분명히 밝히고, 3·1운동 이후 임시정부의 수립

과 독립신문의 발행 및 폐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적시했다. 그리고 신문의 복간 이유를 “『독립신문』이 지닌 역사적 전통을 발양함으로써 3·1대혁명”의 임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 1) 국내 인민들의 반일투쟁과 중국에서의 한국 독립운동의 구체적인 모습 전파
- 2) 우리들의 의견과 요구를 중국 동포들에게 제시하고 또한 그들의 의견과 요구를 접수
- 3) 한국 민족의 역사 문화와 그밖의 혁명사료들도 중국 동포들에게 소개

이 신문은 한국인들의 독립운동의 실상(국내 인민들의 독립운동, 중국 내 광복군의 항전 성과 및 한국 임시정부의 활동과 발전의 정세)을 전파함으로써 중국인들을 정신적으로 고무하여 한국 혁명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내고,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의 의견 및 요구를 주고받는 소통창으로 삼으며, 또한 한국인의 문화 역사 및 혁명 사료들을 소개함으로써 한국을 이해하는 데 참고자료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한중연합 전선을 확대하여 한중 공동의 적인 일제를 물리치고, 대일항전의 승리를 통해 한국의 독립을 얻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중경판 『독립신문』은 임시정부의 기관지로서 한중의 연대와 호조를 바탕으로 항일 독립을 이룩하려는 선전지로서의 기능과 목적에 충실하였으며, 해방 직전인 1945년 7월 20일까지 그 명맥을 이어왔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항전 및 독립 의지를 불태운 것이다.

獨立新聞

號刊創版文中

中記登請聲刊本

行發總編

社聞新立獨

慶重慶訊通

號一第部東路平和

創刊辭

世界第一次大戰後，韓國發生偉大的「三一」大革命運動。從那時，韓國的獨立問題不是韓國一國的問題，而成為世界問題的一個環節。自從中日戰爭，歐洲戰爭，太平洋戰爭相繼爆發後，韓國獨立問題，在國際上，更加顯露其重要性，世界政治家的眼光，慢慢的回轉到東方半島上來。

大韓民國臨時政府是在「三一」運動中，由優秀的民族代表組織起來的政治機構。由於它的產生，在韓國歷史上創造民主政治的新紀元，「三一」運動後在世界革命低潮時期，臨時政府流亡在海外，備嘗艱苦，寫下了充滿血淚的史頁。但是衝破黑暗與荊棘後，光明的大路又呈現在我們面前。隨着世界情勢的變化，韓國臨時政府的旗幟重新以鮮明的姿態出現於國際政治舞台，爭取韓國臨時政府國際承認，已成為三千萬韓國人民最響亮的口號之一。

獨立新聞是在「三一」運動當時，正確地反映獨立運動與臨時政府工作的革命刊物。最初它在上海發刊，繼續出版過一九八期，對韓國三千萬人民，它所起的作用，等於在茫茫黑海的海洋上一座燈塔。

在過去慘長的黑夜裏，這一座明亮的燈塔，不幸被大風暴吹滅，我們所駕駛的船也隨波逐浪，飄搖不定。但是風停雨歇，又見波平浪靜，我們需要把已被熄滅的燈塔重新點燃，使得迷失方向的船隻前進。

的確，目前韓國革命的客觀情勢，比「三一」運動當時，更為有利，韓國臨時政府的國際地位也不下於「三一」運動當時。那麼，獨立新聞的復刊也自然成為時代的要求，我們不僅要把它復活起來，同時要適應時代之變遷，并揭它的歷史傳統，以期完成，「三一」大革命未完成的任務。但是，過去我們的獨立新聞只有韓文版，而無中文版。所以我們一面準備繼續出版韓文版，同時又出中文版。

在目前世界反法西斯戰爭中，因為韓國獨立運動，在世界上，傳佈非常不夠。所以我們的獨立新聞需要各國文字出版，更需用中國文字出版。中國是與韓國休戚相關，患難與共的友邦，在歷史上，地理上，政治上都有很密切的關係，尤其是在一個敵人——日本帝國主義壓迫之下，受同樣的壓迫，所以我們把中國抗戰的勝利，當成韓國獨立的先決條件。因此，韓國人都願意參加中國抗戰，

與中國軍民并肩殺敵，過去的朝鮮義勇隊與現在的光復軍旗幟，飄揚在中國各戰場上，阿里朗的歌聲從東南唱到華北，在中國土地上無處不迴響了韓國革命健兒的熱血！至於在中國方面，也當然要把韓國獨立運動的發展，當成抗戰勝利重要條件之一，所以對韓國獨立運動，在精神上，物質上，都給予莫大的同情與援助。這是我們每一個韓國人需要向中國偉大的領袖——蔣委員長和四萬萬中國人民表示最深刻的感激！但是為要戰勝強大的敵人日本帝國主義，我們需要更加鞏固又擴大韓中兩民族聯合戰線，尤其是我們更需要中國對韓國臨時政府更進一步的援助。為要達到這個目的，我們首先要把握國內人民反對鬥爭與中國境內韓國獨立運動的具體情形，特別是把韓國軍隊與義勇隊在抗戰中所表現的功績和韓國臨時政府工作發展的情形，時常報告給中國弟兄，藉以助長他們精神上之奮鬥。與對韓國革命之同情，這就是本刊主要任務之一；除此以外，我們願意藉本刊，向中國同胞表達我們的意見和要求，并願接受中國同胞對我們意見和要求；至於把有關韓國民族的，歷史，文化與其他革命史料，介紹給中國同胞，做為研究韓國問題的參考資料，也是本刊願意做到的任務。

最後，我們感到自己的力量太單薄，可以完成本刊的任務，如山溝中郭邦人士，樂予援助，并賜以指教，則不唯本刊之幸，亦中韓兩民族之幸也！

羅邱五次會談

對太平洋戰局將有重大決定

北非盟軍大勝之後，英首相於五月十一日抵華盛頓，與美國羅斯福總統，舉行開戰以來第五次會談。因為該同邱吉爾赴美的，有印度英軍司令魏菲爾及海空軍負責人員，所以中韓人們都謂羅邱此次會談，對太平洋戰局將有重大決定。到十九日，邱吉爾在美國會發表演說，表示英軍將參加對日空襲。他說：「各方面認為空軍力量，必須儘速加諸日本之軍事目標，軍事與地理之困難，必須克服，俾能化日本軍事中心為灰燼之程序，即能開始，此項目標，在此大羅斯福總統與余會談中，居於重要地位。英國目標將對日空襲，以符合重大戰略」。繼而英首相之發表演說，於二十日，由羅邱突然召集太平洋作戰會議，「檢討太平洋之每一地區」。此間韓國革命人士，獲悉此項消息極為興奮。咸謂太平洋戰局已到新的轉捩點，遠東弱小民族問題，特別是韓國獨立問題，將居重要地位云。

창간사 創刊號

독립신문(중경판), 대한민국 25년(1943) 6월 1일

세계 제1차 대전 후에 한국에서는 위대한 3·1대혁명 운동이 발생했다. 이때부터 한국의 독립문제는 비단 한국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로 세계 문제의 일환이었다. 중일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구라파전쟁·태평양전쟁 등이 연달아 폭발하면서 한국의 독립문제는 국제적으로 더욱 현저하게 그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세계정치가들의 관심은 점차 동방인 한반도로 향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 중 우수한 민족대표들에 의해 조직된 정치기구이다. 임시정부의 탄생은 한국 역사상 민주정치의 신기원을 이루었다. 3·1운동 이후 세계의 혁명정신이 실로 저조할 때에, 임시정부는 해외에 근거하여 허다한 어려움을 맞보았으며, 수많은 피눈물에 가득 찬 역사의 여러 페이지를 장식하였다.

그러나 암흑과 가시덤불을 파헤친 뒤 마침내 광명한 큰 길이 다시 우리들의 눈앞에 나타나고 있다. 세계정세의 변화에 따라 한국 임시정부의 깃발도 보다 선명한 자태로 국제정치의 무대에 나타나게 되었다. 한국 임시정부의 국제적 승인 쟁취는 이미 3천만 한국 인민의 가장 우렁찬 구호가 되었다.

독립신문은 3·1운동 당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의 모습과 임시정부의 활동을 정확하게 반영한 혁명적인 간행물이다. 최초 상해에서 발간된 『독립신문』은 지령이 198호에까지 이르렀다. 『독립신문』은 한국 3천만 민민에게 대하여 실로 놀라운 작용을 일으켜 만 이량의 험한 물결이 이는 바다 위에 뚜렷한 하나의 등대가 되었다.

그러나 지나간 저 암흑의 밤중에 뚜렷이 밝게 비춰주던 등대는 불

행히도 모진 바람에 꺼져버리고 우리들이 타고 있던 배도 물결에 흔들려 이리저리 밀리고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바람과 비는 멈추고 다시 물결이 안정되었으니 꺼졌던 등댓불을 새로이 밝힐 때가 되었다. 그리하여 방향을 잃을 뻔했던 배도 바로 전진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분명 현재 한국 혁명의 객관적 정세는 3·1운동 당시에 비해서 한층 유리하게 되었다. 한국 임시정부의 국제적 지위도 3·1운동 당시에 못지않다. 『독립신문』의 복간은 자연히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독립신문을 부활시켜야 할 뿐 아니라 시대의 변천에 적응하여야 하며 나아가서는 독립신문이 지닌 역사적인 전통을 발양함으로써 3·1대혁명이 완성하지 못한 임무를 완성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우리 『독립신문』은 오직 한국어 판만 있고 중국어 판이 없었다. 이에 우리는 한편으로는 한국어 판을 계속 출판할 것을 준비함과 동시에 또 중국어 판 창간호를 내는 바이다. 현재 세계 반파쇼전쟁 중에 있어서 한국의 독립운동은 실로 세계를 향한 선전이 부족하다. 따라서 우리의 『독립신문』은 세계 각국의 문자로 출판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중국글로 출판한다는 것은 가장 시급한 것이다. 중국은 우리 한국과는 좋은 일이나 불행한 일이나 함께한 진정한 우방이다. 역사상에 있어서나 지리상에 있어서나 또한 정치상에 있어서나 두 나라는 모두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두 나라는 공동의 적인 일본제국주의의 압박 밑에서 똑같은 박해를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중국의 대일항전 승리를 한국 독립의 선결조건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두 항전에 참가하기를 원하고, 중국의 군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적을 죽였던 것이다. 과거 조선의용대와 현재 광복군의 깃발이 중국의 여러 전장에서 휘날리고 있다. 아리랑의 노랫소리는 화남부터 화북까지 퍼지고 있다. 중국의 대지 위에는 어느 곳이나 한국의 혁명군 아들의 뜨거운 피가 뿌려지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러니 중국으로서는 당연히 한국 독립운동의 발전을 위해야 하는 것이요, 또 이것이 항전을 승리로 이끄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모두 막대한 동정과 원조를 주고 있는 터이다. 이 점 우리 한국 사람은 모두 중국의 위대한 영수領袖 장莊介石 위원장과 4억 중국 인민들에게 가장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그리고 저 강대한 적국 일본 제국주의와 싸워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다시금 힘을 공고히 하고, 또 한국과 중국 두 나라 민족의 연합전선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중국이 우리 한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더욱 확실한 원조를 줄 것을 요구하는 터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우선 국내 인민들의 반일 투쟁과 중국 국경 안에서의 한국 독립운동의 구체적인 모습, 특히 무장한 한국 군대들이 항전 중 세운 공적이라든지 그 밖에 한국 임시정부의

활동과 발전의 정세들을 그때그때 중국의 형제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그들의 정신적인 고무와 또 한국혁명에 대한 동정을 조장시키려 하는 바이다. 이 점이 바로 본 신문 간행의 주된 임무의 하나인 것이다.

이외에도 우리들이 원하는 바는 본 독립신문을 통해서 중국 동포들에게 우리들의 의견과 요구를 표하자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중국동포들이 우리들에게 보내는 의견과 요구도 이 신문을 통하여 접수하려 한다. 그리고 한국 민족의 역사·문화와 그밖의 혁명사료들도 중국동포들에게 소개함으로써 한국 문제를 연구하는 참고자료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본 『독립신문』을 발간하는 근본 뜻과 임무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의 역량이 부족한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그러니 이 신문이 지닌 임무를 완성시키자면 중국과 한국의 인사들이 즐거이 원조해 주시고, 아울러 지도해 주셔야 할 것이니 이것은 비단 본 독립신문에 있어서 다행일 뿐만 아니라, 또한 중국과 한국 두 민족에게 다행한 일일 것이다.

『독립신문』 2대 사장 김승학

—글: 조준희(국학인물연구소 소장)



희산 김승학

김승학의 『독립신문』 사장 취임과 복간

희산 김승학(1881~1964)은 평북 의주 출신으로 국내에서 배일 연설, 일장기 게양 반대 운동을 하다가 1910년 10월 망명해 1919년 대한독립단 재무부장을 지냈다.

1920년 관전현에서 활약하던 김승학은 상하이 임시정부에 2회 방문했다. 첫 번째는 1920년 2월 남만주 통일기관 명칭 승인 및 무기구입 목적이었다. 임정 군무부 직할 ‘광복군사령부’로 인가 받고 총기류 240정과 탄환 수만 발을 구입하고서 무사히 귀환했다.

두 번째는 1921년 2월 말 만주 및 국내 정세와 동지들의 체포 순국 사실을 군무부에 보고하고 지원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출발해 4월 상하이에 도착했다.

초기 『독립신문』 상황

그러나 기대했던 임시정부는 국무총리 이동휘가 탈퇴하고, 친일 변절자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군무부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처지였다.

특히 기관지 『독립신문』 초대 사장 겸 주필 이광수가 일제에 투항해 귀국했고, 영업부장 이영렬마저 친일로 돌아서면서 신문사 소재지와 인쇄소 비밀 장소를 일본 영사에게 밀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제는 이를 기회 삼아 프랑스 영사관에 항의해 신문사를 봉쇄했고, 인쇄소 집기류를 압수했다.

『독립신문』 복간과 직원

김승학은 무관 학교 운영 대신 신문사 해제 방안에 대해 안창호와 논의했고, 프랑스 영사관과 교섭해 절차를 밟은 결과 1921년 7월 초(음력 5월 말)에 신문사 인쇄소가 개방되었다.

김승학은 2대 사장에 취임했고, 직원은 다음과 같이 조직되었다.

사장 : 김승학, 주필 : 박은식, 편집국장 : 차리석

기자 : 조동호, 김문세, 박영, 이윤세

인쇄소 책임자 : 고준택

『독립신문』 인쇄소 위치

『독립신문』 발간소는 제111호(10.5)부터 4면 상단에 “Published in Nanking, China” 라고 실제 장소와 다른 “난징”으로 표기했는데,



삼일인서관 터(현 화부텐디 아파트 내 정원)



채찬(백광운)

©대한민국사박물관

이는 프랑스조계 공무국 협약 2항 “독립신문 발간소는 다른 지방으로 신문지상에 명기할 것”에 따른 것이었다.

인쇄소 위치는 사장과 인쇄소 책임자만 알고, 다른 직원들은 몰랐다. 이는 협약 5항 “신문사나 인쇄소의 비밀 장소는 다수의 한인이 알지 못하도록 할 것”에 따른 것이었다.

단, 인쇄소(삼일인서관) 주소가 ‘망지로望志路 영길리永吉里

40호’로 두 번 공개된 적이 있었

다. 필자가 현지 답사한바 지금의 루원구 마탕루 222호인데 옛 건물과 터는 사라졌고 화부텐디華府天地 아파트가 들어섰다.

신문사 제정과 발행 성과

학계에서는 상해판 『독립신문』 간행을 세 시기로 구분해 창간호(1919.8.21)~109호(1921.5.31)까지 이광수 운영기를 ‘초기’, 속간 110호(1921.8.15)~177호(1924.10.4)까지 김승학 운영기를 ‘중기’, 178호(1924.11.29)부터 198호(1926.11.30)까지 박은식, 최천호, 최창식 운영기를 ‘후기’로 설명한다. 중기 『독립신문』은 김승학이 3년간 총 68호를 발행했다.

신문사 제정은 임정 차입금 44.2% 외에 신문 대금과 광고 수입이 10.6%, 기부금 및 의연금인 34%를 차지했다. 특별히 의용단원 채찬(이명 백광운)과 장기초(이명 김소하)가 거금을 정기 후원해 경영난을 극복하며 간행을 유지했다.

김승학 운영 시기 『독립신문』의 특징

일제하 해외 미디어의 대표 격인 『독립신문』은 독립을 열망하는 국내외 일반 국민과 각지 독립운동가들에게 비중과 기대가 컸다. 비록 기관지였지만 언론의 독립성과 역할을 충실히 유지하고자 경영을 이원화하고 정부 비판도가 감 없이 논설로 실었다.

중문판 발행 및 한글 제호 변경

김승학은 중국인들에게 임정의 독립운동 의지를 널리 알리고 중국과 연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중문판을 1922년 7월 20일 1호부터 40호를 발행 배포해 호응을 얻었다. 국제 여론 호소는 김승학이 독립신문을 맡고자 했던 첫 동기였다. 한인 독자들을 위해

한자 제호 “獨立新聞”을 1924년 1월 1일자 169호부터 한글로 바꾸었다.

지역 소식 세분화

국내외 소식을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 국내 정보는 초기대로 본국통신란에 실었고, 만주 소식은 만주/간도, 안동, 관전, 장백현, 길림, 봉황성, 임강통신 등에 각지 항일 전투나 투옥된 지사들의 재판 과정을 실었고, 중국 소식은 광둥, 남경, 소주, 합이빈(하얼빈), 북경, 한구, 흑하통신란에 실었고, 러시아 소식은 아령, 해삼위, 치파 통산란에, 미국 소식은 미주/화성돈(워싱턴)통신란에 실었다.

관동대지진 사건 특파원 보도

『독립신문』 중기의 가장 큰 사건은 1923년 9월에 발생한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이었다. 김승학은 생생하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특파원을 활용했는데 나고야의 한세복(본명 한광수)을 도쿄에 파견해 진상을 조사하게 했다. 1923년 9월 4일자 호외를 시작으로 9월 19일자 164호부터 1924년 2월 2일자 171호까지 8호에 걸쳐 대지진과 한인 피해 상황 기사를 내보냈는데 167호(12.5)에 특파원 1신 「일만의 희생자!!!」를 1면 기사로 실고, 피학살자수를 6,661명으로 보도했다. 일본에서 학살 현장을 목격했던 오토 부르하르트(Otto Burchardt) 박사를 독일 유덕고려학우회 고일청과 황진남이 직접 인터뷰해 2회(168 170호) 게재한 점도 돋보인다.

사설, 시가

『독립신문』 1면에는 주필의 사설이 실렸다. 4면에는 주로 독자 투고가 실렸는데 신문사 기자 내지 기고자의 국문시거나 한시도 익명, 이명, 실명으로 꾸준히 발표되었으며 저항과 우국 심정이 담기고 인상 깊은 작품이 다수 보인다.

1922년 5월 27일자 127호 1면의 「꽃다운 죽음」, “먹기 위해 사느냐, 죽기 위해 사느냐. 잘 죽으려 살다가, 잘 살려고 죽어라. 우리의 오늘날 처세 목적은 사수 독립” 익명 시가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1922년 3월 1일자 121호에 민족대표 33인 김병조 목사가 삼일절 기념으로 기고한 「독립선언기념」 이합체시도 주목된다.

- ① 단의 편견을 가져 대사업을 소극적으로 고집하지 말고,
 ② 지를 굳건히 하여 민족의 통일적 정신을 기성期成[이루어지길 기약]하라.
 ③ 전을 하려거든 이천만 동포의 자각을 격발激發[격렬히 일어나 게]하여라.
 ④ 충신 행동경[말은 공변되고 미더우며 행실은 돈독하고 경건해야 함]은 성현군자의 위공偉功[위업]을 성취하는 요법要法이다.
 ⑤ 강이 문란하면 경장更張[고쳐 새롭게 함]하기 전에는 만사 불성不成하나니,
 ⑥ 자재자念茲在茲[자꾸 생각해 잊지 않음]할 것은 오직 금일을 각심각골恪心刻骨[삼가 마음과 뼈에 새김]할지이다.

영정 사진 증가

한 장의 사진을 당시 신문에 실기 위해서는 사진 제판 시설을 갖추고 여러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중기에는 사진 11컷이 사용되었는데 그 중 7컷이 부고 영정(손병희, 신규식, 스나이더 부인, 김교헌, 김광추, 박상만, 채찬) 그리고 단군 영정 1컷으로 확인된다. 나머지 3컷(27.3%) 생존 지사는 독일 유덕고려학우회원, 윤해, 의열단원 김지섭이다.

사진 게재 비율은 초기와 차이 나지 않지만, 사망자로 3.1운동 희생자 사진만 4컷이었고, 나머지 15컷(79%)이 국내외 동포들의 활동이나 생존 인물의 사진을 실었던 점에 비해 1/3로 확연히 축소되었다. 추모를 중시하는 한편 지사들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으려 했던 점을 엿볼 수 있다.

서적 공익 광고

광고는 신문사 수익에서 필요한 부분이었지만, 출판물의 공익 홍보 위주로 실렸다. 김교헌의 『배달죽역사』, 김두봉의 『김더조선말본』, 김병조의 『한국독립운동사략』(상편), 박은식의 『이순신전』, 이춘갑의 『상해홍업지남』, 김교헌의 『신단민사』가 차례로 광고되었다.

김승학의 사임

김승학은 임정의 신망을 받으며 1924년 4월 의정원 평안도대의원, 5월 학무부 차장, 학무부 총장 대리로 승진했다.



국립대전현충원 김승학 지사 묘소(4묘역 495)

그런데 9월 14일, 통의부와 참의부 간 갈등이 고조되다가 참의장 겸 제1중대장 채찬이 통의부원들에 의해 암살되었다. 이에 10월 4일자 『독립신문』 177호에 통의부 비관 사설(‘남만사변을 듣고’)과 참의부의 통의부 「성토문」을 싣고 동지 채찬에 대한 추모로 지면을 채웠다. 이를 본 통의부 측에서 격분해 11월 7개 단체와 연합, 반임정 선언 및 독립신문 구독 금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승학은 예기치 않게 독립운동 단체 명의를 큰 반발을 사자 부담을 느끼고 11월 15일 사임한 뒤 끝내 상하이로 떠나게 되었다. 그 후 내몽골로 스승 조병준을 찾아가 임정 직할 단체인 의민부 총무부장을 맡았다가 1927년 10월 참의부 4대 참의장에 임명되어 서간도 독립운동 단체의 통합에 힘쓰던 중 1929년 일경에 붙잡혀 5년 간 옥고를 치렀다. 1962년 정부로부터 공적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받았다.

김승학은 서간도 항일투사 임정 지지 언론인 『한국독립사』 집필 역사가로서 한국독립운동사에 기여한 인물로 평가된다. 향후 기념관 내에 『독립신문』 공간이 별도 마련되어 지사의 업적을 기리고 미디어를 통한 애국애족 정신 계승 시민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란다.

100년 전 뜨거운 시간 속으로 상하이 독립운동 사적지 여행

— 글. 도선미(여행작가)

夫
夫
心
家
生
不
遠

©도선미



와이탄

100년 전 상하이와 독립운동 와이탄에서 뒷골목까지

중국 상하이는 아시아의 여러 도시 중 20세기 초반의 모습을 가장 많이 간직한 도시일 것이다.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황푸강변 와이탄外滩과 난징동루南京东路 일대만 해도 당시 주류를 이뤘던 신고전주의 건축물이 수십기나 이어지는데, 도시 전체로 치면 이런 역사 건축물이 총 630기에 이른다. 도시의 주된 인상이 건축물에서 오는 만큼, 상하이에서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100년 전으로 시간 여행이라도 온 듯한 기분이 든다. 100년 전 상하이에 살았던 독립운동가들이 본 풍경도 지금 우리가 보는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다.

1919년 3·1운동 이후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자, 임시정부와 항일 단체들은 상하이로 거점을 옮겨 투쟁을 이어갔다. 영국과 프



스쿠먼 농탕



스쿠먼 농탕

랑스, 미국의 조계지가 뒤섞여 있던 국제도시 상하이는 서방 국가에 한국의 독립 의지를 알리고,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 대의를 도모할 적격지였던 것이다. 그런 이유로 영화 '밀정(2016)', '암살(2015)', '아나키스트(2000)' 등 임시정부 활동과 국외 독립 운동을 다룬 영화에는 빠짐없이 상하이가 등장한다. 영화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상하이의 뒷골목 농탕弄堂, 서양식 연립주택과 중국식 사합원 주택이 합쳐진 스쿠먼石庫門도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는 풍경이다.

아마 영화를 보고 나서 가슴이 뜨거워진 나머지 상하이의 독립 운동 성지를 순례해야겠다, 선조들의 숭고한 발자취를 되짚어 봐야겠다 결심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롭고 맹렬했던 독립 투사들의 흔적은 이제 거의 사라지고 없다. 그래도 유일하게 남아있어 위안을 주는 곳이 옛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大韓民國臨時政府舊址와 루쉰 공원의 매정梅亭이다.

김구 선생의 처절한 애국혼이 깃든 곳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13일 상하이 조계지였던 김신부로(현 서금2로瑞金二路) 청사에서 출범했다. 중국과 한반도 각지에 산발한 임시정부를 통합했고,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내무총장은 안창호, 경무국장은 김구를 선임했다. 헌법에 명시한 대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은 나라이니, 지금의 대한민국은 상하이에서 탄생한 셈이다. 임시정부는 그 후로 프랑스 조계지 안에서 여러 차례 이전했지만, 현재 남아있는 곳은 보경로(현 마랑로馬當路) 청사 뿐이다. 보경로 청사는 1926년 7월부터 1932년 4월까지 임시정부가 가장 오랫동안 사용한 청사이자, 상하이에서 마지막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_김구 선생 집무실

©조선비

으로 머문 청사이다. 이후 임시정부는 상하이 시대를 끝내고, 항저우 杭州로 이주한다. 중국과의 오랜 단교로, 보경로 청사 역시 영영 잊히고 버려질 뻔했지만, 1993년 철거 직전 복원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관광 명소인 신텐디 新天地에 왔다가 근처 보경로 청사에 들른 외국인 관광객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발길을 돌리기도 한다. 전형적인 3층 스쿠먼 石庫門 가옥 형태인 청사가 허름하고 볼품없어서다. 1층은 부엌, 2층은 집무실, 3층은 침실로 쓰였는데, 방이 달랑 4개 뿐이다. 한 나라의 살림이 이토록 작은 곳에서 꾸려졌다니 서글픔이 밀려왔다. 타국의 초라한 셋집에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독립을 위해 하루하루 싸워간 그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가슴 한 칸이 빠근해져온다.

영화 ‘밀정’에는 “임시정부는 거지꼴이고 장관은 돈이나 꾸려 다닌다”는 대사가 나오는데, 보경로 청사 시절 임시정부가 실제 그랬다. 당시 국무령으로 최고 수반이었던 김구 선생은 이곳 2층 집무실에서 “참담하고 고난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최대, 최후의 결심”을 하고 『백범일지』 상권을 썼다. 1930년에 들어서자 임시정부는 갈수록 커지는 일제의 위세와 극심한 재정난, 인재난으로 허덕이고 있었다. 상하이의 독립운동가 수는 수천명에서 수십명으로 줄었고, 임시정부는 청사 집세 30위안을 내지 못해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김구 선생 스스로 자책하며 “고대광실이 결인의 소굴이 된 형편”이라고 할 만큼 임시정부는 무정부 상태에 가까웠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 바로 이봉창, 윤봉길 두 의사의 의거였다. 이봉창 의사의 도쿄 거사는 안타깝게 실패했지만, 윤봉길 의사는 상하이 거사에 성공했다.

©대한비

윤봉길 열사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는 곳

‘윤봉길의사 생애사적 전시관’

개인의 희생을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의거가 독립운동에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은 것만은 분명하다. 고향이 충남 덕산인 윤 의사는 아내와 어린 아들을 두고 오로지 독립운동을 위해 혈혈단신으로 상하이에 왔다. 채소 장사를 하며 와신상담하던 그는 어느 날 김구를 찾아간다. 일본이 중국과의 전쟁(제1차 상하이 사변)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고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결심에서였다. 김구는 윤봉길 의사에게 어려운 제안을 꺼냈다. 전쟁 승리와 일왕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홍콩우 공원에서 성대한 축하 행사가 열리는데, 여기 참석한 고위 인사들을 폭탄으로 저격하자는 것이었다. 윤봉길 의사는 망설임 없이 응했다. 독립운동사에 길이 남을 1932년 4월 29일의 홍콩우 의거는 그렇



©도전비

게 시작됐다.

윤봉길 의사가 홍커우 공원에서 던진 것은 도시락 폭탄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수통 폭탄도 함께 던졌다. 도시락 폭탄은 불발했고, 수통 폭탄은 터져서 상하이 거류민 단장이었던 가와바타 사다지(河端貞次)를 비롯해 일본군 고위 인사 7명을 사살했다. 이 사건은 로이터통신 등에 보도되며 대한민국의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임시정부는 정체된 활동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김구는 애꿎은 동지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배후임을 밝혔다. 일본 경찰은 그를 잡는데 혈안이 되어 60만위안(현 200억원 상당)의 현상금을 걸었고, 결국 김구와 임시정부는 상하이를 떠나게 됐다.

홍커우 공원은 현재 루쉰 공원 鲁迅公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 장소는 현재의 루쉰공원 루쉰묘 앞 광장이다. 그의 행적을 기리는 ‘윤봉길의사 생애사적 전시관’이 공원 북쪽에 있다. 규모는 작지만 윤봉길 의사의 삶과 의거 전후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하는 곳이다. 시내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외곽이지만, 윤봉길 의사를 기리는 한국인들 그리고 종종 중국인들이 적지 않게 이곳을 찾는다. 2023년 우리는 달콤한 여행의 설렘을 안고 상하이를 찾지만 1923년의 선조들은 조국을 떠나는 착잡한 마음과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상하이를 찾았다. 지금 우리가 상하이를 여행하며 누리는 행복은 후손들이 자주 독립국 대한민국에서 당당하게 살길 바랐던 선조들의 노력에 빚지고 있다. 전시관을 돌아보고 나서 드는 생각이다.

윤봉길 의사는 의거 현장에서 검거돼 그해 12월19일 일본 가나자와 감옥에서 순국했다. 그의 나이 겨우 스물다섯살이었다. 전시관에서 그가 망명길에 오르기 전 썼다는 글을 보곤 먹먹함에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윤봉길 의사가 남긴 뜨거운 문장으로 이 미진한 원고를 마치고자 한다.

©도전비

“우리 청년 시대에는 부모의 사랑보다, 형제의 사랑보다, 처자의 사랑보다도 더 한층 강의剛毅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라와 겨레에 바치는 뜨거운 사랑이다. 나의 우로雨露와 나의 강산과 나의 부모를 버리고라도 그 강의한 사랑을 따르기로 결심하여 이 길을 택하였다.”



윤봉길의사 생애사적 전시관



홍커우 의거 당시 단상이 있던 장소. 현재는 루쉰 공원 광장으로 바뀌었다.

『독립신문』 만평을 통해 보는 상해 한인들의 생활 문화

— 글. 김광재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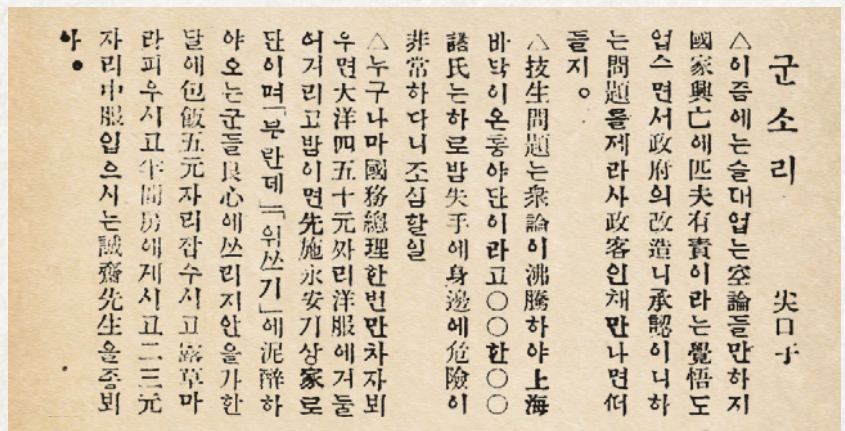
1

1919년 8월 21일 중국 상해에서 창간된 『독립신문』은 1926년 폐간될 때까지 활발한 항일필봉투쟁을 벌였다. 독립신문의 지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포고문을 비롯하여 법령, 국무회의와 임시의정원 관련 기사, 독립운동의 당위를 주장하는 논설들이 넘쳐났다. 주의력 깊은 독자라면 그 속에서 「군소리」라는 제목의 짤막한 만평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만평 「군소리」는 독립신문 창간 다음 달인 1919년 9월 20일부터 11월 15일까지 17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군소리」를 쓴 이는 자신을 독립신문 기자로 밝힌 ‘첨구자(尖口子)’라는 필명의 인물이다. 독립운동가 조동호로 추정되는 첨구자는 상해 독립운동진영과 한인사회에 대한 풍자와 비평,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했다. 그는 ‘뽕죽한 입’의 소유자답게 상해 독립운동의 내밀한 모습과 인간군상들을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자유롭게 고도 거침없이 풍자하고 비평하였다. 물론 내용 가운데 주관적이고 과장된 내용이 없지 않지만 첨구자의 만평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 직후 상해 한인들의 생활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군소리는 상해 한인들의 소비문화에 대해 날카롭게 풍자하였다. 임시정부 수립 직후 독립운동을 위해 상해에 온 경우 고국에서 가산을 처분하고 온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주 초기 한인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었다. 그들은 국내에서 억눌렸던 소비 욕구를 자유롭게 표출하곤 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친 경우가 더러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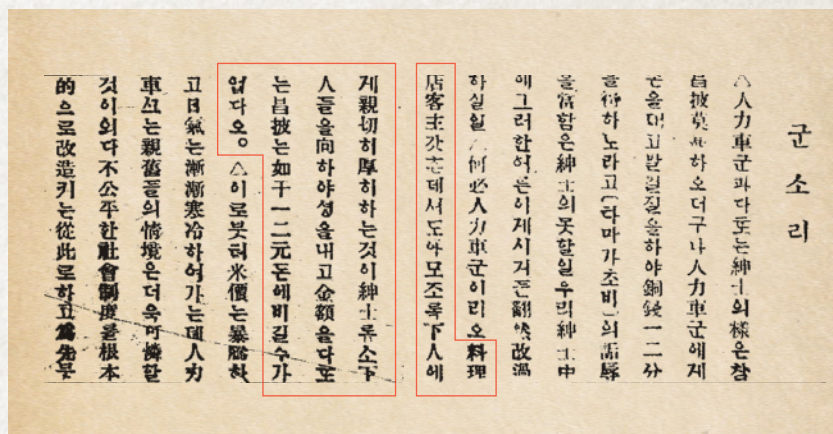
©독립신문

누구나마 國務總理 한번만 차자 뵈우면 大洋四五十元짜리 洋服에 거들어거리고 밤이면 先施永安 기상家로 단이며 「부란데」「위쓰기」에 泥醉하여 오는 군들 良心에 쓰리지 안을가. 한 달에 包飯五元자리 잡수시고 露草 마라 피우시고 半間房에 계시고 二三元자리 中服 입으시는 誠齋先生을 좀 뵈아(『독립신문』, 1919-10-04. 이하 날짜만 표기함).

일부 상해 한인들이 상해 번화가에서 환락에 빠지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비싼 양복에 밤이면 고급 요리점이나 ‘기상家’ 즉 기생집을 다니며 양주에 취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치 현상에 대해 첨구자는 ‘誠齋先生’을 본받으라고 하였다. ‘성재선생’은 다름아닌 이동휘를 가리킨다. 이동휘의 검소한 생활은 유명했던 것 같다. 첨구자는 이동휘가 상해에 온 후 1달에 5원하는 ‘포반包飯’ 즉 월식사로 해결하고 있으며 값싼 의복에 누추한 곳에서 기거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첨구자는 사치와 환락을 일삼는 일부 한인들에게 검소하게 생활하는 이동휘를 본받을 것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3

상해 한인들의 지나친 음주 문화도 종종 문제가 되었다. 술은 전 세계 인류가 농경생활을 시작한 이래 줄곧 함께 해온 기호품이다. 인간의 의식에 신성함을 더해 주고 축제의 즐거움을 만끽하게 해주는 술은 사람 사이의 소통에 윤향유 역할을 한다. 그러나 지나친 음주는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19세기 한국에서 활동했던 서양인 천주교 선교사에 의하면, 음주벽의 폐단은 일일이 다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라를 황폐하게 하였다고 한다. 지나친 음주문화는 한인들에게는 그리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았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관대하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다. 첨구자는 한인들이 음식점에서 시중드는 사람들에게 역정을 내고 음식값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풍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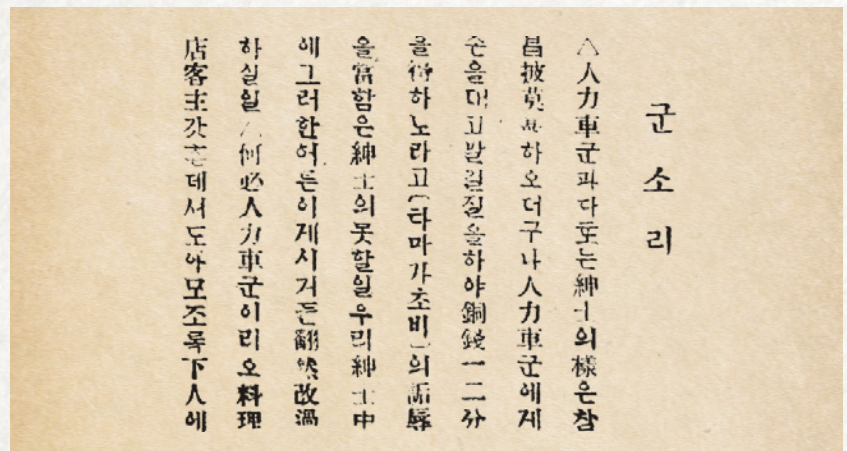
… 料理店客主 갖흔 데서도 아모조록 下人에게親切히厚히하는 것이紳士롭소. 下人들을 向하야 성을 내고金額을 다 토는 昌披는 如干一二元돈에 비길 수가 업다오. …… (1919-09-20).

음식점에서 한인들이 종업원들에게 화를 내고 음식 비용을 다투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력거 운임과 마찬가지로 음식 비용을 둘러싸고도 시

비가 많았다. 실제로 음식점에서 종업원과 시비가 붙었다가 경찰에 끌려가는 경우도 있었다. 첨구자는 한인들이 음식점에서 종업원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것을 당부하였다.

4

첨구자는 한인들의 상해 현지 중국인 인력거꾼에 대한 태도 문제를 지적하였다. 첨구자는 상해 현지사회 최하층 계급인 중국인 인력거꾼들의 존재를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았다. 그는 1919년 당시 상해에서 한인들이 인력거꾼과 다투고 그들을 천대하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人力車군과 다투는 紳士의 樣은 참 昌披莫甚하오. 더구나 人力車군에게 손을 대고 발길질을 하여 銅錢一二分을 得하노라고 (타마가초비)의 辱을 當함은 紳士의 못할 일. 우리 紳士中에 그러한 어른이 계시거든 然改過하실 일 何必 人力車군 이리오. ... 이로부터 米價는 暴騰하고 日氣는 漸漸 寒冷하여 가는데 人力車 끄는 親舊들의 情境은 더욱 可憐할 것이외다. 不公平한 社會制度를 根本的으로 改造키는 從此로 하고 爲先 부대(디) 銅錢分式이나 넉넉히 주실 일(1919-09-20).

첨구자는 한인 '신사紳士'들이 운임 한두 푼을 아끼기 위해 '인력거人力車군'과 다투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손을 대고 발길질을 하는 모습을 '창피막심'한 것으로 꼬집었다. 그 때문에 '후욕詬辱' 즉 비난받은 후욕 한인 신사들의 반성을 촉구하였다. 첨구자는 사회적 약자인 인력거꾼들을 지식인 특유의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당장 불공평한 사회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힘들지만 우선은 미가의 폭등과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고생하는 불쌍한 인력거꾼들에게 운임을 넉넉하게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계속하여 첨구자는 임시정부 관리를 가운데도 인력거꾼과 시비 끝에 싸우는 경우가 있다고 통렬하게 고발하고 있다.

군소리 尖口乎
 △싸보라! 주...라하면諸君의귀
 에는만히들지못하던말이겠지요。
 日人은이것을怠業이라翻譯하였는
 가불되다。勞動者가同盟罷工代身
 에使用하는軍略인데。실은하는데
 하면서도야니하고만든다고만든것
 은原料의浪費或은雜物을척거主人
 에게損害주기만爲主。機械에는남
 모르난故障을生기게한것이怠業
 이래요。이말을워하느니하면近來
 政府職員이그런狀態中에있다고某
 氏의慷慨談。本國서는오늘來日불
 이러진다는可精神차려야할걸。
 △政府官吏險談하나더하리라。政
 府문아페서人力車군과쌈하는것브
 기싫어。남이보면昌皮하고내가보
 면구역이나서。

政府官吏險談 하나 더 하리라. 政府문 아페서 人力車군과 쌈하는 것 브기 싫어. 남이 보면 昌皮하고 내가 보면 구역이 나서(1919-10-11).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한인뿐만 아니라 심지어 임시정부 관리들 가운데서도 정부 청사 정문 앞에서 인력거꾼과 다투는 경우가 그리 드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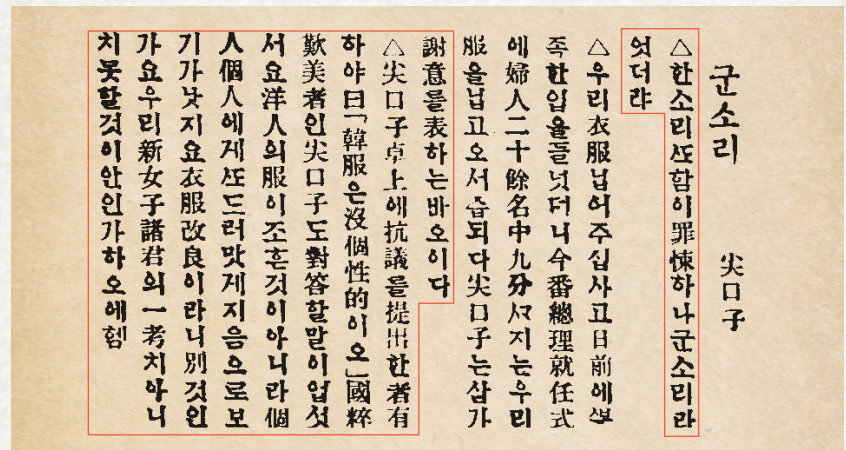
5

첨구자는 상해 한인 여성들이 한복을 착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사회적 약자 계급인 인력거꾼에 대해서는 동정과 함께 사회 제도의 개혁을 주장하여 진보적인 측면을 보였지만, 여성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이었다. 상해 한인 여성들에게 한복 착용을 고집스럽게 요구한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군소리 尖口乎
 △韓人이란種族은웨그리外國服을
 남기도화하는지日本가면日本服아
 라사가면아라사服中國을와보닛가
 모조리中國服을넌엇단말이야男子
 들은제손으로옷을질수도업고勿論
 지어주는이도업고(大段히서분한
 現象이지만은)그러다고本家에서
 붓쳐오기도거북하니그러다할팡정
 婦人네들이야무엇이不足해서알
 이中國옷을넌고단날라
 ▲지나간八月에日本雜誌婦人公論
 에「日本女子에게넌혀보고자하난
 衣服一이라난題目으로各美術家에
 게答案을請求하엇을대其中에서韓
 國을旅行해본일이잇은畫家は異口
 同音으로韓國옷을넌혀보았으면하
 었더라其中에三宅克巳가호이난
 韓國의優美를입이아프게稱贊하

韓人이란 種族은 웨 그리 外國服을 남기 도화하는지 日本 가면 日本服 아라사 가면 아라사服 中國을 와보닛가 모조리 中國服을 넌엇단 말이야. 男子들은 제손으로 옷을 질 수도 업고 勿論 지어주는 이도 업고(大(段)히 서분한 現象이지만은)

그러타고 本家에서 붓쳐오기도 거북하니 그러타 할망정 婦人네들이야 무엇이 不足해서 알뜰이 中國옷을 입고 단닐까(1919-10-25).



한소리 또 함이 罪悚하나 군소리라 엇더랴(1919-11-11).

우리 衣服넙어 주십사고 日前에 뽀족한 입을 들넙던니 今番 總理就任式에 婦人 二十餘名中 九分까지는 우리 服을 넙고 오서습 되다. 尖口子는 삼가 謝意를 表하는 바오이다(1919-11-11).

尖口子 卓上에 抗議를 提出한 者有하야 曰「韓服은 沒個性的이오」國粹 歎美者인 尖口子도 對答할 말이 업섯서요. 洋人의 服이 조흔 것이 아니라 個人個人에게 또 드려맞게 지음으로 보기가 낫지요. 衣服改良이라니 別 것인가요. 우리 新女子 諸君의 一考치 아니치 못할 것이 안인가 하오. 에헴(1919-11-11).

참구자는 한인 특히 여성들에게 한복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 양장을 입는 ‘新女子’ 즉 신여성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것 같다. 참구자는 한인 여성들이 “아름다운 자기自己네 옷 버리고 보기 실흔 놈의 옷넙을 까닭이야잇나”라고 비평하였다. 여하튼 참구자는 자신의 발언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동휘 국무총리 취임식에는 참석한 여성들 가운데 90%가 한복을 입고 참석하였다고 하였다. 당시 행사 때 남자들은 양복, 여자들은 한복을 입는 것이 이미 하나의 관습으로 굳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20년 4월 상해 정안사공묘靜安寺公墓에서 거행된 안태국安泰國의 장례식 때 사진을 보면 남자들은 대개 양복차림이지만, 여성들은 한복 차림이 많았다. 그런 의미에서 한복은 장구한 세월을 거쳐 그 맥과 전통이 여성들의 노력에 의해 지켜져 왔다고 하겠다.*

* 본고는 필자의 논문(『독립신문 만평의 상해 한인 독립운동과 생활문화 풍자 - 1919년 尖口子の ‘군소리’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제81집, 2017)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상하이의 난징로, 1930년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1층 특별전시실

물결;파동, 미디어에 나타난 대한민국 임시정부

— 글. 이정윤(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학예연구사)

물결;파동

미디어에 나타난

대한민국 임시정부

The Wave

프롤로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동을 만들다

프롤로그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산한 다양한 미디어를 소개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나라 밖에 세워진 정부였기 때문에, 수립된 직후부터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국내 동포들에게 소식을 전했다. 수립 초기에는 주로 『독립신문』과 같은 인쇄물을 발간했으며, 이후에는 라디오 방송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를 이용하기도 했다. 1942년 6월 당시 주미외교위원장이었던 이승만이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라는 라디오 방송에서 국내 동포들을 향해 연설한 육성이 녹음된 LP판과, 김규식의 라디오 연설문 원고 등이 전시되어 있다. 유물과 함께 실제 라디오 육성을 이용한 사운드아트를 통해 임시정부가 전한 소식이 독립에 대한 희망을 전파하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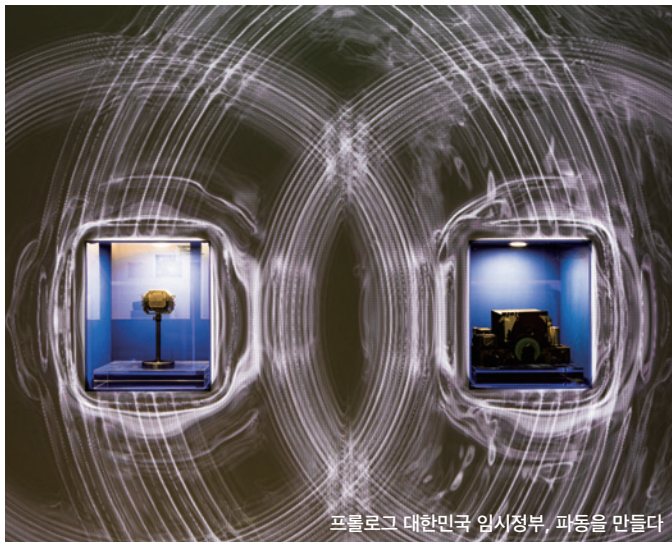
1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제와 오늘

1부에서는 광복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언론 보도를 다루었다. 우선 70여 년이라는 시간을 광복 직후-1950년대, 1960-80년대, 1990년대-2019년까지의 세 시기로 나누고, 각 시기마다 임시정부가 주로 어떤 주제와 연관되어 보도되었는지 알아보았다.

임시정부 요인들이 생존해 활동하던 시기인 광복 직후부터 1950년대에는 환국과 국민들의 환영, 정부 수립과 관련된 기사들이 주를 이루었다. 시간이 흐르며 임시정부는 점차 지난 역사가 되어갔다. 요인들의 서거를 알리는 추모 기사들이 이어지고, 임시정부 사료 수집과 학술 연구의 시작을 알리는 기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1987년 임시정부가 다시 헌법 전문에 명시되면서 그 법통성이 언론을 통해 재조명받기도 했다. 한중수교 이후에는 중국에 남아있던 임시정부 청사 복원과 유해 봉환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그와 관련된 보도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주요 전시 자료로는 주석 김구가 환국을 맞아 국내 동포들에게 전하는 인사말이 실린 『조선일보』 1945년 11월 25일자 지면, 충청 청사 복원 소식을 보도한 1994년 2월 28일자 MBC 뉴스데스크 영상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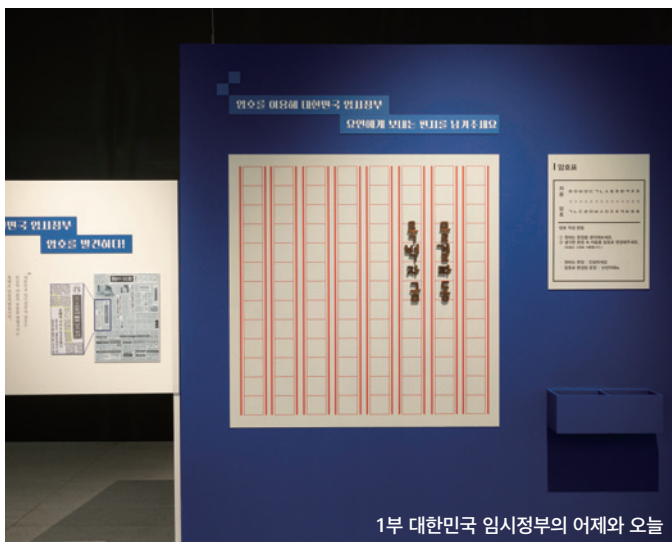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수립 100주년을 맞는 2019년은 한 해 동안 보도된 임시정부 관련 기사들 중,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 100개를 선정해 벽면을 꾸몄다. 이 글자들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였다.



프롤로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동을 만들다



1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제와 오늘



1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제와 오늘

2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상

2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등장하는 영화들을 주제별로 소개하는 공간이다. 영화는 가장 대중적인 미디어 중 하나로써, 우리가 임시정부를 어떻게 기억하고자 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매체이다. 2부에서는 영화 영상과 더불어 극본, 포스터, 신문광고, DVD 등 영화와 관련된 실물 자료들, 그리고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임시정부 활동과 관련된 유물들을 함께 전시하여 이해를 돕고자 했다.

먼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영화를 소개한다. 영화 <유관순>(1959)과 <아아 백범 김구 선생>(1960) 중 주요 장면을 감상할 수 있으며, 관련된 실물 자료로 <삼일독립운동>(1959) 시나리오와 유관순 포스터, <상해임시정부>(1969) 극본 등이 있다. 다음으로는 임시정부를 지키기 위해 나선 의사와 열사들에 대한 영화를 다루었다. 김시현·황옥 등 의열단원들의 경성 폭탄 밀반입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밀정>(2016), 유진식·이덕주의 우가키 총독 암살 시도를 모티브로 한 <암살>(2015), 그리고 이봉창·윤봉길 의거를 다룬 <일본제국과 폭탄의사>(1967)를

만나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임시정부의 군사 활동과 독립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다. 만주 지역 독립군들의 활약을 다룬 <일송정 푸른솔은>(1983), <봉오동 전투>(2019)를 당시 사용되었던 무기들과 함께 감상할 수 있으며, 임시정부 요인들과 교류하며 독립운동을 했던 비행사 안창남의 일대기를 다룬 <안창남 비행사>(1949)도 함께 소개하였다.



2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상



2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상

3부. 시대 속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3부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야기를 다룬 책들을 소개하였다. 책의 판매 동향은 트렌드에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시대적 분위기를 읽는 핵심적인 지표가 된다. 따라서 3부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책이 많이 출판된 시기는 언제였으며, 또 시대별로 어떤 종류의 책들에서 임시정부 이야기가 다루어졌는지 살펴보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용(1945)』, 『김상옥 열사의 항일투쟁실기(1948)』, 『다큐멘터리 임시정부(1983)』 등의 책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진열장은 대형 책 모양으로 연출하여 관람객이 책 속의 책을 읽는 듯이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야기를 기억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써 현대 작가들의 미술 작품을 함께 소개하였다. 역사적 사건을 모티브로 한 김수빈 작가의 작품 4점,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독특한 방식으로 담아낸 주환선 작가의 독립운동가 초상화 6점을 만나볼 수 있으며, 임시정부 가족들이 살던 마을의 풍경을 그린 민정기 작가의 대형 작품 <토교 우리촌>으로 전시가 마무리된다.

2023년 하반기 특별전시 <물결:파동, 미디어에 나타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미디어를 통해 여러 사람들이 기억하고, 기록해 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모습을 소개하고자 했다. 아직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주제를 낯설고 어렵게 느끼는 이들이 많은 가운데, 미디어라는 친숙한 소재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좀 더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특별전은 내년 2월 18일(일)까지 기념관 1층 특별전시실에서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3부 시대 속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3부 시대 속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3부 시대 속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기억하는 새로운 방식

화폭에 독립운동가의 모습을 담다

— 주환선 작가를 만나다



2023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하반기 특별전 <물결, 파동, 미디어에 나타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가 초상화 6점을 전시하고 있다. 10년째 독립운동가의 초상을 화폭에 담아 내고 있는 주환선 작가. 그는 왜 독립운동가를 그리게 되었을까.

본인을 ‘동넙’이라는 별명으로 소개해주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개인적인 별명으로 쓰는 말이다. 독립운동할 때 독립을 발음할 때 ‘동넙’으로 들린다. 한자로는 독립과는 다른 의미이다. 모일 동쪽에 모이는 모양 닙꼴을 쓰는데 나를 잘 표현해주는 것 같아서 호 처럼 사용하고 싶은 말이다.

소중한 작품을 흔쾌히 출품해주기 어려웠을 듯하다.
어떤 마음으로 출품을 결심했는지, 이번 전시가 본인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궁금하다.

올해가 나에게 정말 운이 좋은 해이다. 거짓말 같은 게 2022년까지 해도 나는 무명 작가였다. 그런데 부산에 동산 김형기 선생의 기념관이 건립되면서 내 일러스트를 온라인 홍보에 사용하고

싶다고 해서 흔쾌히 그러시라고 했다. 그런데 그 일러스트를 보고 연락이 온 신문사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 ‘나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가, 역사를 알리려는 사람인가?’라는 지점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나는 ‘그림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 그림이나 일러스트를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때마침 임시정부기념관에서 출품 제안을 주셨다.

독립운동가 그림 작업을 하며 공부를 하다 보면, 소위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나온다. 점점 모르는 분들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다른 다양한 독립운동가들과 연결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도 자연스레 늘 관심이 있었다. 원래 밖에 잘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임시정부기념관에는 한번

꼭 가보고 싶었다. 마침 가보고 싶었던 곳에서, 나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기도 해 방문했는데 직접 가서 보니 기념관도, 전시 내용도 너무 좋았다.

10년째 독립운동가의 초상화와 일러스트를 그려왔다고 들었다. 특별한 계기가 있다.

원래 역사를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좋아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집에서 늘 보시던 게 역사 다큐멘터리였다. 나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역사책들도 많이 읽고 그림도 역사 그림만 그리곤 했다.

그러다 일본에서 유학 중이던 시절, 안중근 의사의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다. 당시 다큐멘터리가 인상 깊게 남아서인지 한국에 돌아와서 그림 작업을 시작할 때 모형을 고민하다 문득 독립운동가가 떠올랐다. 그렇게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보고 처음으로 작업을 시작했다.

당시에는 시리즈 정도로 10개 정도의 작품만 하고 끝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었다. 큰일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를 몇 프로라도 알려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다.

초상화에 눈을 그리지 않는다고 들었다. 어떤 이유에서인가.

처음에는 눈을 그리려고 했다. 그런데 독립운동가의 사진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 인쇄 상태나 화질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다. 원래 그림에서 눈을 그릴 때는 조금 살아 있는 것처럼 그려야 하는데, 사진처럼 그리려고 하니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사진의 눈을 보면서 수없이 작업을 반복했다. 그런데 작업을 할 때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그리는 대상에게 감정을 이입하며 계속 수정하고, 또 수정하다 보니 문득 ‘이 눈은 내가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전시를 열었을 때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리지 않은 것도 있다. 실제로 눈을 그리지 않았을 때 독립운동가들이 누가 누구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 그런 분들이 전시를 보고, 이 독립운동가가 누구라는 것을 알았을 때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을 느꼈으면 하는 메시지를 담고 싶었다.

이번 전시에 총 6점의 독립운동가 초상화를 출품해주었다.

각각의 독립운동가들은 성별부터 행적, 나이 등 서로 다른 점이 많다.

그들의 어떤 면을 작품에서 표현하고자 했었나.

독립운동가들을 그리는 작업을 할 때, 그들의 ‘마지막 한 줄’로 작업을 시작한다. 바로 그들의 삶의 마지막 순간, 즉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유화의 경우 작업할 때 기본적으로 ‘슬픔’이 베이스가 된다. 그와 동시에 지금을 편한 삶을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의 감정을 표현하고자 했다.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죄송함, 부끄러움을 작품에 나타내고 싶었다.

예시로 정정화 선생을 작업할 때 이미 일곱, 여덟 분 정도의 작업을 한 상태였다. 그 때, 문득 ‘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끄럽더라도 살짝 고개는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눈 한쪽을 비대칭으로 그려 넣어 보기도 했다. 그런데 정정화 선생을 공부하다 보니 내가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뒤로 다시 눈을 아예 그리지 않았다. 아직 눈을 그리기에는 내가 부끄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이봉창 의사는 남아 있는 사진 자체가 많지 않았다. 그 사진들도 흔들리거나, 빛이 반사되었거나, 수감 되었을 때나 일본 경찰에 끌려가는 모습... 그런 사진들이었다. 그래서 합성으로 알고 있기는 하지만 이봉창 의사 그림은 의거에 나서기 전 마지막 모습이라고 하는 활짝 웃는 모습의 사진을 모본으로 사용했다.



© 주환진



© 주환선



작업할 때 힘든 점은 없는지?

독립운동가 거의 대부분이 사진이 없다. 기록에서는 분명 중학생 시절에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고 하는데, 찾아보면 노년 시기의 사진 기록만 남아계시는 분들이 많다. 나는 상상화를 그리는 게 아니라 기록을 보고 내 감정을 그려낸다. 그래서 사진 자료가 없는 경우 가장 큰 어려움을 느낀다. 또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흔히 매일 보는 사진이 아닌, 내가 찾아낸 사진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자료가 없다 보니 그런 부분이 어렵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최근 SNS를 통해 역사를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분들과 연이 닿는 경우도 있다. 그분들이 본인의 연구 성과나 찾은 자료들을 올려주시기도 하는데, 그 자료들에서 꽤 많은 사진이 있으면 작업해야 할 목록에 추가해두기도 한다.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은 무엇인가?

유화 작업은 중단한 상태이지만, 일러스트는 지금까지 작업한 것이 약 180명 정도 되는데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해 1번부터 다시 작업하고 있다. 일러스트로 1,000명 정도를 채우게 되면 독립운동가 도감 같은 책을 출판해보고 싶기도 하다.

내년에는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갈 예정이다. 미국에서도 독립운동가 작업을 이어나갈 생각이다.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운 수많은 미국인이 있다. 그들을 내용으로 활동을 이어가서 이주한 3세대, 4세대 아이들에게도 그림을 보여주고 싶다.

계속 독립운동가 작업을 하고, 쉽지는 않겠지만 서울도 왔다 갔다 하면서 전시를 열 계획도 있다. 갑자기 다른 엉뚱한 그림을 그리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마음으로는, 내가 죽기 전까지 아마 독립운동가 작업을 계속하지 않을까 한다.

연구교육과

국민대표회의의 100주년 계기 국내학술회의 〈국민대표회의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개최

올해는 중국 상하이에서 국민대표회의가 열린 지 100주년 되는 해이다. 이 회의는 1923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나아갈 방향과 독립운동 방략을 논의한 것이자, 독립운동단체 및 지역대표들이 모여 가장 오랫동안 회의를 진행한 기록을 세웠다. 기념관은 이를 기념하여 10월 30일 의원원홀에서 〈국민대표회의와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주제로 국내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국민대표회의 개최 전후 서간도지역 독립운동 세력의 군사방침, 회의 개최자금, 독립운동 방략, 임시헌법 개정, 국내언론의 보도경향 분석과 관련하여 다섯 명의 전문가의 주제 발표로 진행되었다.

이번 학술회의는 국민대표회의가 임시정부 활동과 독립운동에 미친 영향 및 의의와 관련 연구성과를 일반인 및 학계에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념관은 결과물을 대한민국 연구총서로 발간하여 유관기관 및 도서관 등에 보급할 예정이다.



국민대표회의의 100주년 계기 국내학술회의의 진행 모습

국외사료 수집방안 세미나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료수집, 어떻게 할 것인가?〉 개최

기념관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국외 사료의 효과적인 발굴 및 수집을 위해 지난 11월 9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국외 사료,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는 중국, 일본, 미주, 영국, 프랑스 총 5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관련 연구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사료 수집방안에 관해 논하였다.

중국지역 사료수집 방안에 관해서는 손성욱 교수가 중국 당안 자료와 신문잡지·도서 등 문헌자료와 대표적인 DB를 소개하였다. 일본지역 사료수집 방안에 관해서는 최은진 편사연구사가 일본 주요기관 자료 가운데 국사편찬위원회, 국회도서관에서 조사·수집한 사료현황을 밝히고, 임시정부 관련 수집 대상 자료 목록을 소개하였다. 미주지역 사료수집 방안에 관해서는 박종연 기록연구사가 미국의 주요 기록기관 사료수집 현황을 발표하였다. 영국지역 사료수집 방안에 관해서는 권의석 교수가 영국 국가기록원 등 관련 사료 수집에 관해 정리 및 제안하였다. 프랑스지역 사료수집 방안에 관해서는 윤종문 정연구원이 프랑스 지역 사료수집 현황과 수집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사료수집 현황과 향후 수집 과제를 파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기념관은 자료 발굴, 번역 과정을 거쳐 자료집을 발간, 아카이브에 탑재하여 활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외사료 수집방안 세미나에 참여한 연구자들 모습

제4회 대한민국 임시정부사 토크콘서트 〈영화로 보는 순국선열의 활동·의의〉

지난 11월 14일 기념관 의정원 홀에서 제84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영화로 보는 순국선열의 활동과 의의〉라는 주제로 올해 마지막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팝페라 그룹 라클라체의 축하 공연과 함께 이야기 패널로 이원혁 피디, 태지호 교수, 김희곤 관장이 참석하였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원혁 피디가 〈같은 역사, 다른 영화〉라는 주제로 윤봉길의거와 채코의거의 공통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영화화 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태지호 교수가 〈영화는 독립운동을 어떻게 재현하는가〉를 주제로 독립운동 관련 영화를 통해 독립운동이 대중들에게 어떻게 기억되는지 설명하였다.

기념관은 지난 4월 〈사진으로 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시작으로 올해 총 네 차례 토크콘서트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학술회의나 강연과 같이 일방소통적 진행에서 벗어나 진행자와 온·오프라인 참여자 간 실시간 소통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사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했다. 토크콘서트의 주제도 중·고등 국사 교과서나 한국사 개설서 등에서 나오지 않는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기념관은 앞으로도 다양하고 친숙한 매체를 활용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일반인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학술 연구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제4회 대한민국 임시정부사 토크콘서트

전시운영과

2023 순국선열의 날 및 임시정부 한국기념일 계기 〈장난감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전시·체험행사 개최

기념관에서는 지난 11월 7일 순국선열의 날(11.17.)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중국에서 한국한 날(11.23.)을 기념하는 전시·체험 행사로 〈장난감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 독립운동의 순간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표이로 청사와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 장면을 재현한 레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관람객들이 직접 블록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기억할 수 있는 장난감을 만들어 보는 체험 공간도 준비되었다. 관람객들은 블록으로 준비된 도안을 따라 태극기, 하트 모양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본인이 창작한 블록 작품을 만들어 전시에 직접 참여해볼 수 있다.

특히 순국선열의 날인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3일 간),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한국일인 11월 23일을 비롯하여 25일, 26일에는 기념관을 방문하는 어린이 중 선착순 100명에게 무궁화를 만들어 볼 수 있는 블록 키트를 선물로 배부하였다. 현장 이벤트는 12월 2, 3일과 9, 10일에도 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전시·체험 행사는 12월 10일에 종료된다.



장난감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상자〉 순회전시 제주항일기념관에서 개최

기념관은 지난 10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주항일기념관에서 기억상자 순회전시를 개최하였다.

기억상자는 기념관의 상설전시 내용을 축약하여 제작한 이동형 전시콘텐츠이다. 제주항일기념관에서 전시된 기억상자는 1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공화정의 시작', 2부 '대한민국의 뿌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3부 '대한민국, 여기서 시작하다', 4부 '그대들 돌아오시니, 환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념관에서는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윤봉길의사기념관, 밀양시립박물관,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심산김창숙기념관, 석오이동녕기념관, 광주백범기념관 등 다양한 지역의 독립운동 관련 기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상자〉 순회전시를 개최하였다. 기념관은 다가올 2024년에도 다양한 지역의 기관들과 협력하여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알리고 지역 문화콘텐츠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제주항일기념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상자〉 순회전시

전시운영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국외 순회전시
〈한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돌아오다〉 개막

기념관에서는 지난 3월 16일 주중한국문화원과 전시·연구·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성과를 공유하고 문화콘텐츠 확장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그리고 지난 11월 23일, 업무협약에 따른 첫 사업으로 중국 베이징北京 주중한국문화원 1층 예원 갤러리에서 광복 후 중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한국한 날을 맞이하여 〈한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돌아오다〉 특별전시회를 개최하였다.

개막식에는 김희곤 관장과 김진곤 주중한국문화원장을 비롯하여 재중한인미술협회, 중국항일투쟁기념관, 주중대한민국대사관 등 다양한 한중 교류 기관의 인사들이 참여하여 양국 교류의 장을 빛냈다. 이번 특별전시회는 2024년 3월 18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기념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해외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하여 우리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국외 순회전시 〈한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돌아오다〉 개막식

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적지 탐방 추진

기념관은 개관 이후 처음으로 국외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적지 탐방을 추진하였다. 탐방은 11월 중 2회차에 걸쳐, 각 5박 6일 일정으로 중국 소재 임시정부 사적지 탐방 및 미션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 1회차 : 11. 8. ~ 11. 13.
- 2회차 : 11. 15. ~ 11. 20.

탐방단은 중국 상하이, 항저우, 충칭 임시정부 청사 등 임시정부 사적지를 방문하였다.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직접 찾아봄으로써, 숭고한 독립정신을 현장에서 직접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탐방과 관련된 다양한 미션을 진행하며 독립의 의미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3 국외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적지 탐방

10월

10월 7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상자〉 순회전시 개막

📍 제주항일기념관

10월 14일, 15일

서대문구 문화재 야행 참여

10월 16일

기특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사 강연
2023 하반기 특별전시 〈물결; 파동, 미디어에
나타난 대한민국 임시정부〉 전시관람

10월 21일

초·중등 교원 대상 임정애용두 운영

📍 의정원홀

10월 30일

국민대표회의 100주년 계기 국내학술회의 개최

📍 의정원홀

기념관 타임라인

1001 ~ 1130

11월

11월 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상자〉 순회전시 개막

📍 도산안창호기념관

11월 5일

국외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적지 탐방단 발대식

📍 의정원홀

11월 7일

〈장난감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전시·체험행사

📍 복합문화공간

11월 9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료수집, 어떻게 할 것인가〉

국외사료수집방안 세미나 개최

📍 의정원홀

11월 14일

제4회 대한민국 임시정부사 토크콘서트

〈영화로 보는 순국선열의 활동·의의〉

📍 의정원홀

11월 23일

2023 국외순회전시

〈한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돌아오다〉 개막

📍 중국 베이징 주중한국문화원 1층 예원갤러리

11월 27일

기특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사 강연

한인 최초의 전투비행사 영화 〈창공으로〉

2023년 4/4분기 기념관 주요소식 알림

12월 교육프로그램 안내

기념관은 12월 기념관을 찾은 모든 사람들이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쌀쌀한 겨울, 기념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 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교육 안내



신청 링크

2023 하반기 특별전 〈물결;파동, 미디어에 나타난 대한민국 임시정부〉

전시 기간
2023. 9. 26. ~ 2024. 2. 18.

전시 장소
기념관 1층 특별전시실

전시 내용
다양한 미디어에 나타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모습을 전시. 미디어에 표상된 임시정부의 모습과 앞으로도 기억되어야 할 임시정부의 가치를 조명

유물 기증 안내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일제강점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독립운동 및 임시정부 관련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기념관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나갈 많은 분들의 기증을 기다립니다.

기증 대상

-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독립운동을 조망할 수 있는 관련 기록물 (문서, 출판·인쇄물, 사진, 동영상), 유품, 생활용품 등 역사자료
- 출처가 분명하며, 역사적 의미 및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자료

기증 문의

연구교육과 02-772-8795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상자〉 순회전시

전시 내용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상설전시 내용을 축약하여 담은 '기억상자' 전시

전시 장소 및 전시 기간

도산안창호기념관
2023. 11. 1. ~ 2023. 12. 17.

전시해설 안내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관람객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상설전시 및 특별전시 해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해설은 별도로 운영하지 않으니, 해설 앱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시

매주 화~금	매주 토·일/공휴일
11:00	11:00
14:00	13:00(특별전시)
15:00(특별전시)	14:00
16:00	15:00(특별전시)
	16:00

장소

기념관 1층 안내데스크

접수방법

현장접수(회당 30명 이내 선착순, 별도 예약 없음)

단체해설문의

전시운영과 02-772-8754

2023 국외순회전시 〈한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돌아오다〉

전시 기간

2023. 11. 23. ~ 2024. 3. 6.

전시 장소

중국 베이징 주중한국문화원 1층 예원갤러리

전시 내용

일본이 패망하자 대일항전의 최전선에서 투쟁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조국으로 한국하고, 국민들은 그들을 뜨겁게 환영. 이들의 한국과 임시정부가 남긴 유산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지속과 역사를 조명